FEB 1 5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46 1982년 2 월12일(금), 13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ebruary 12 & 13, Friday & Saturday,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트루도 일행 이대사관저 또 방문
두터운 한·카 우의를 다져

◇이규현 대사

(오타와 이태은 지국장) 트루도 수상은 이규현 대사관저에 있은 초청만찬회에서 "지난 9월의 서울방문은 뜻깊은 일이었다. 한국은 자주 가보고 싶은 나라"라고 회상했다.

9일 저녁 이규현 오타와주재 한국대사는 트루도수상을 비롯한 지난 9월 서울을 방문한 캐나다 관리들을 서섹스 드라이브의 관저로 초청, 칵테일파티와 함께 한식부페 만찬회를 가졌다.

수상은 외무성 맥귀스 차관보, 수상실 보좌관 피우리등 7명의 행정부 일행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참석, 대사관에서 이대사 부부, 이현홍 공사 부부와 같이 서울방문의 뒷얘기로 저녁 한때를 즐겼다.

이규현대사가 88올림픽 개최지로 서울과 캘거리가 동시에 결정될 때의 흥분을 회고하자 트루도수상은 올림픽경기준비에 긴밀한 협력을 갖도록 바란다고말했다.

트루도수상은 이날 만찬에서 전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통일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오8시 정각 시작된 만찬회 도중 참석자들은 문공부 기록영화「트루도 수상의 방한」을 관람 한다음 한국음식의 고유한 맛을 즐기는등 밤11시 까지 뜻있는 양국친선의 밤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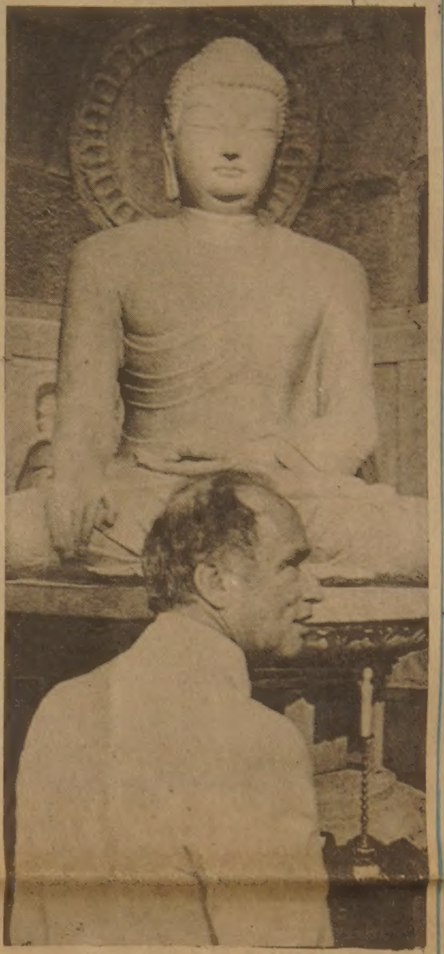
지난 9월 방한직전 이대사 관저를 방문한 트루도 수상은 이번 방문으로 한국과 캐나다의 유대관계의 밀도를 다시보여주었다.

한 나라의 원수가 외국 공관저를 공적 또는 사적으로 5개월 사이에 2번 이나 방문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이같은 트루도 수상의 대사관저 거듭 방문은 이규현 대사의 외교능력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이날 만찬회는 극히 사적인 모임이었다고 전한 이현홍 공사는 "방한얘기등 일반적 화제만 있었을 뿐, 캔두원자로 문제등 한국과 캐나다 정치적, 또는 상업적 현안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제1차 캔두원자로 건설이 거의 끝나, 캐나다로서는 제2차 캔두 원자로를 증설하는 문제가 양국의 큰 관심사로 남아있다.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이날 만찬회에서 마가렛과 별거중인 트루도 수상을 동반한 여성이 누구인가는알려지지 않았다.


◇트루도수상이 작년9월 한국을 방문했을때 경주의 석굴암에 들러 불교예술을 음미하고 있다.

정보제공 호소 피살소년 부친

지난주 교살시체로 발견된 스카보로 소년의 아버지가 TV를 통해 이번 살해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호소했다.

메트로 살인전담수사반이 이번 사건의 정보수집을위해 특별전화를 설치하자, 수레쉬·굽타는 CBC-TV에나와"재발 이번 사건에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아는사람은 알려달라"고호소했다.

라예쉬·굽타(8)는 지난 3일오후 스카보로의 공장지대 미들필드(Middlefield Rd.)근처 눈두덕에서발견됐다.

8일밤 TV에 출연,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아버지는 비탄과 슬픔으로 목까지 쉬었다. 경찰은 이번사건의 범인을 잡지못하고있다.

이번사건에 관한 정보를 아는 시민은 아래전화로연락해 주기를 경찰은 요망하고있다. 전화 : 292-2752

박세직소장 방문
에너지산업 시찰차

(오타와-이태은지국장) 최근 동력자원부 정치고문으로 정계에 몸·백한 전수도경비 사령관 박세직 예비역소장이 산업시찰차캐나다를 다녀갔다.

박소장은 지난4일 토론토를 거쳐 8일상오 오타와에서 캐나다 원자력공사도네리 사장을만나 한국의에너지개발문제등을 협의하고 송전시설등을 둘러봤다.

8일하오 몬트리얼을 거쳐 유럽으로향한 박소장은 지난 7월까지 수도경비사령관으로서 한국군부의 중심인물이었다가 육사동기생인 모 재미교포의 이권청탁사건에 관련, 군복을벗었다.

박소장의 캐나다방문 목적은 원자력발전소추가건설을 서두르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캐나다에너지산업을 둘러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5일 토론토에서도박소장은 원자력발전소 시설등을 둘러봤다.

◇오타와에 들른 박세직소장(좌)과 한국대사관의 백승웅 무관.

남북한50명 대표단 구성
북한측서 통일에 새 제의

(서울11일=연합)국토통일원장관의 통일을위한 20개 시범사업 대북제의를거부한 북한은 이에 대신해서 쌍방 50명으로된 통일문제협의 대표단을 구성, 이들로 하여금 협상토록하자고 제의했다.

11일 내외통신은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남·북한 대표50명 명단중에는 북한의 부주석 김일등 당요직·인물이 포함된 반면, 남한대표 50명 명단에는전 외무부장관 최덕신씨등 친북괴 인사등과 일부종교계 지도자, 약간명의 정계인사들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킹즈컵 축구대회서
남북한 대결할듯

(서울 11일=연합) 타이랜드는 오는 5월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될 제 15차 킹즈컵 축구대회에 남북한을 동시 초청했다고 11일 한국 축구협회 소식통이 밝혔다.

타일랜드,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및인디아를 순방하고 11일 귀국한 오완곤 축협부회장은 타이축협으로부터 남북한 동시초청을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교민배구연습장 마련
배구협회 3월대회준비

지난 31일 창설된 토론토한인배구협회(회장 문영환)는 시내 2곳에 교민들을 위한 배구훈련장을 마련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사이 하오 6시~10시에 참가할 수 있는 이 배구훈련은 협회창설을 기화로 연중내내 실시된다.

오는 3월에 첫 교민배구대회를 계획중인 협회는 봄가을 각각 1번씩의 대회를 구상중이다. 9일 유망한 청소년들이 많다고전한 배구협회 임승철 사무장은 교민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했다. (전화: 755-9925)

동협회는 일본, 중국계등 다른 에트닉그룹과도 친선경기를 계획중이다.

장 소 A: David & Thompson Coll. Insti. 2740 Lawrence Av E. 스카브로.
책임자 : 이두건, 임승철

장 소 B: D A Morrison Jr. High. 371 Gled Hill, East York
책임자 : 권도용, 정기석

65세이전 은퇴
강요 못해

연방법률이 정한 정년퇴직연령인 65세이전에는 은퇴를 강요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9일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피고용자가 나이때문에 직장생활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고용주가 증명치 못하면 권고사직을 못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현재 정년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마니토바 주와 뉴·브룬스윅주를 포함, 캐나다 전국에 적용된다고 온타리오주 인권옹호 위원회의 하워드·존스씨가 해석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두명의 에토비콕소방서 직원이 60세에 퇴직하도록된 노조의 규정에 불복, 고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최종심 에서 나왔다. 노조의 60세정년퇴직규정은 나이를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는 인권헌장에 위배된다는 인권위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며 이토비콕소방서가 나이 때문에 소방수로서의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단지 주관적 견해일 따름 이라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친교의 밤"
한인천주교회

토론토한인천주교회(신부 고종옥)는 오는20일(土) 하오7시30분, 쎄인·폴 성당 지하강당에서 「교우친교의 밤」 파티를 연다.

칵테일·파티, 댄스, 음악프로등으로 엮어질 이날행사의 입장료는 $3, 부부 $5이다.

오늘의 예금금리 (2월6일 현재)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59일	13.75%	12.5~13.5%
	60~89일	14%	12.75~13.75%
	90~179일	14.25%	13~14%
	180~1년	14.5%	14.25%

보험이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5639
454 BLOOR ST.W. TORONTO.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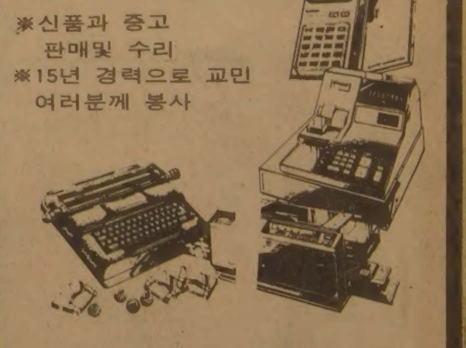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O 수리중 차 대여
O 완전한 차체수리
O 사고차량 Towing Service
O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현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돈랜즈~유니온 연결노선
새 지하철 계획

돈랜즈 서브웨이역과 유니온역을 잇는 새로운 지하철 건축계획이 TTC당국에 의해 발표될 예정이다.

TTC수석전무 일프·세비지는 9일 비공개적으로 열린 TTC회의후 새노선은 영(Yonge)서브웨이 노선의 혼잡을 해결하는데 매우중요하다고 확인했다.

소식통은 아직 확실한노선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블로어, 댄포스 선상에 있는 돈랜즈역부터 그린웃TTC 공작창을 지하로 통해 스카보로 지역의 고우트레인(통근열차) 철로를 이용, 유니온역까지 이르게 된다.

세비지는 새 노선설립의 우선적 이유는 토론토동부의 돈랜즈로부터 오는 승객을 수용함으로써 영(Yonge)노선의 혼잡을 덜고, 그들을 신속히 다운타운의 유니온역까지 수송 하는데 있으나 수년후에는 노선을 북쪽으로 돈밸리 지역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남북노선은 계획중인 호숫가 노선과 연결되며, 종국에는 서쪽으로 확장되는 노선을 따라 토론토국제공항까지 연결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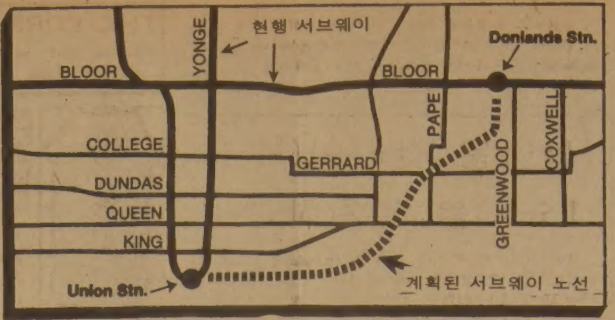
새 노선의 계획과 완공에는 5년이 걸리며,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는 아직 알 수 없다.

한편 TTC는「영」노선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단기조치를 구상중이다.

□더프린(Dufferin St.)을 중점적으로 더 많은 버스전용도로 추진.

□브로드뷰나 캣슬 프랭크와 같은 서브웨이역에서 승객을 직접 유니온역까지 옮길 수 있는 새로운 급행버스노선신설.

□노스욕의 윌슨 디비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및 정보시스템의 확장 이것은 중앙관제소에서 컴퓨터로 모든 버스망을 연결한다.



◇계획된 노선 새 노선은 돈랜즈역에서 유니온역을 잇는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키와니스콩쿨 2등
임마누엘어린이 성가대

임마누엘교회 어린이 성가대가 금년도 키와니스콩쿨뮤직페스티발의 교회성가대 쥬니어 부문에서 2등을 차지했다.

송경란 지휘, 헬렌·송 반주의 임마누엘어린이성가대는 10살이하 어린이들로 구성된 성가대끼리 경합한 쥬니어 성가부문에서 작년에도 2등을 차지했었다.

이번 심사점수는 85점이었다.

키와니스뮤직페스티발은 사회봉사클럽이 주최하는 대음악경연대회로 기악, 성악, 드라마등 음악전분야에서 수상자를 뽑고 재질을 가진 수상자들은 세인·로렌스·홀에서 합동연주회를 갖는다.

참가자수만도 3만5천명이 넘는 규모면에서 세계최대인 키와니스대회 에는 해마다 많은 한인교포자녀들이 입상했다.

대회가 진척되는대로 올해도 많은 교민자녀입상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

◇지휘자 송경란씨

쇼스타코비치 부자 세종회관서 연주

(서울9일=연합) 작년4월 서방으로 망명한 소련의 지휘자 막심·쇼스타코비치와 그의 아들인 피아니스트 드미트리·쇼스타코비치가 9일 서울에 도착했다.

러시아가 낳은 대작곡가로 1975년 별세한 드미트리비치·쇼스타코비치의 아들과 손자인 이들은 현재 미국에 살고 있으며 1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을 공연한다.

경제활동 서울집중
세금·예금·산업등서 우위

(서울 9일=연합)한국정부의 수도서울 인구분산정책에도 불구, 한국인의 경제활동이 서울에 집중하는 현상이 최근 몇년동안 더 증가하고 있다.

9일 발표된 대한상공 회의소 보고서에 의하면 80년말 서울인구는 8,500만 이상으로 전국 총인구의22.3%를 차지했다.

이같은 인구집중률은 76년보다 2.1% 높은 것이다.

76~80년 사이 서울인구는 17.4% 증가했다.(연평균 4.4% 증가). 한편 같은 기간 전국 총인구증가율은 6.5%였다.(연평균 1.6% 증가).

서울은 80년 국민총생산의 28.5%를 기여했고, 전국적으로 전산업회사및 공장들의 45.6%, 임금노동자들의 33.1%를 차지했다.

80년 서울시민은 전국에 걸쳐 부과된 모든 법인세의 66.2%를 납부했고, 총은행예금의63.5%를 예금했다.

서울은 전국적으로 56.8%에 상당하는 호텔객실, 41.5%의 자동차, 44.8%의 칼라 TV셀, 40.6%의 개업의, 43.5%의 초급대학및 대학교를 보유하고있다.

서울의 주택분배율은 80년에 61.7%였다.(전국 평균은 74.5%였음)

이 보고서는 서울이 전국평균보다 주택 분배율이 낮은 것은 풍부한 취업 기회를 예상, 지방에서 서울로 많은 사람이 이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社說
광고와 언론(2)
— 식품업계 분쟁을 계기로

토론토의 교포식품 업자간에 상품거래·가격경쟁등을 에워싼 파열현상이 감정대립으로 치달은 끝에엉뚱한 곳으로 불티를 튕겨 광고게재 신문사까지 물고 들어가려는 경향이 드러나, 본란에 언급 아니할수 없기에 이르렀다.

일의 발단은 지난달로 소급한다. 지난 1월25일자본보에 삼복·서울·한발의 3식품점 공동명의로「신년대세일」광고를 게재.

팬·아시아대표에게 공개해명요구 3대조건을 내세운데서 비롯된다. 그 조건은 대략 아래와 같다.

①팬·아시아는 쌀을 너무 비싸게팔아 7년간 엄청난 폭리를 취했으니 이를 교민사회에 반환할 용의가있는가?

②고국상품애용을 부르짖으면서 이웃에있는 한인동업자에게는 물건을 주지않고, 일본·중국상인들에게주는 태도를 지적.

③팬·아시아「장미표쌀」을 돈받고 팔아놓고, 미국서D·Y「장미표쌀」을 수입했다는 구실로 도로 빼앗아 가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상의 공개답변 요구에 대해 팬·아시아측은 한국식품 본점·서부·동부 까지 합친 4자명의로 본보2월1일자에「해명서」명의의 광고를 실어, 답변겸 자기측 주장을 내놓았다.

이 답변이 동문서답식으로 미흡다하여 삼복·서울·한발및 D.Y.Import Co.의 4자명의로 재차 2월4일자 본보에 광고「공개질문서」를 내어 바야흐로 양측간에 설왕설래(說往說來) 공방전이 한창이다.

그런데 언론으로서 밝히고 넘어가야 할 점은 팬·아시아측「해명서」(2월1일자)의 서문이다.

"사실여부를 확인하지않고 모략적인 광고를 실어주신 한국일보에 아래같이 해명합니다."하고 위에서 지적한 3개질문에 대해 답변을 나열한점은 신문과 상대업자를 혼돈한 방향착오임을 지적하겠다.

무릇 답변이나 반격은우선 질문자나 공격자에 대해 던져야할 성질의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갑에게 맞고, 옆에서있는 을에게 화풀이"하는 식의 태도는 수긍을 받지 못함을알아야 한다.

팬·아시아측은 신문사에대해 해명할 것에 앞서 위의 3업체에게 해명함이 우선임을 모를리 없을 터인데, 적(?)을 젖혀놓고 우대제공자(광고거래신문)를 공격 주목표로 삼는 태도는 자기들의 싸움에 언론을 끌어들이려는 저의가아닌가 의심케 한다. 의도적으로 언론을 적으로 돌려서 이득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진다.

여기서는 양 그룹간의갑론을박의 흑백을 따지고가려내기에 앞서 광고주의횡포문제와 문제된 첫광고(1월25일자)접수때 문안에대해 본보측이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는데 얼마나 애썼는가 하는점을 지난10일자 기사에서 지적했다.

이 기회에 똑똑히 알아둘일은 어느 한측을 편들거나, 적으로 삼는 신문은 이미 정도(正道)를 벗어난 사이비 언론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철두철미 하게「바르고 빠른 보도」와「민중의 동지요 지팡이」일 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삼고 있고, 또한 삼아야 하는것이다. 만약 이해문제나 친분관계, 체면등에 얽혀 불의, 부정을 음폐하거나 두둔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미 신문으로써의 품격을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민중의 편이요, 정의의 대변자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

이미 2월10일자 본보 기사에서 밝혀졌듯이 팬·아시아측은 해명서를 게재한후 상품광고는 본보게재를 거부하고 다른 교포신문에는 이 광고를 해명서와 함께 게재했다. 본사와의 통화에서 본사가식품업자간의「싸움」을 시키려고 반대업자들의 광고를 실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상은 광고주로서 광고게재를 무기로 삼으려는횡포로 지적되겠다. 얼마전 여행사들이 보도기사에 불만 품고 집단으로 광고 보이콧 사태가 있었으며, 일부 광고주는 광고 게재를 기화로 보도기사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어, 사업가로서의 그의 품격에 앞서 사람으로서의 양식(良識)의 척도를 스스로 격하시킨일도 있었다.(본보사설 12월19일자「광고와 언론」참조)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일은 기사와 광고의 각각 성격이 다른 독립성이다. 아무리 같은 신문사의 업무라 하지만 보도가치가 없는 광고내용은 도저히 기사화될 수 없으며, 보도가치면에서 비중이 큰 사건들은 광고와는 상관없이크게 다루어 진다.

광고는 사업번창을 위한 선전, 즉 자기이익을 위해 필요해서 내는 것이 사실이라면, 신문에게 혜택을 주는 듯이 자선가연한 태도는 지양(止揚)되어야 하며, 이를 무기로 삼고 술수를 쓰는 이들은 현대를 사는 문화인으로서 심히부끄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하겠다.

지금 한창 성명전(?)으로 불꽃을 튕기고 있는 식품업계의 양측 상반된 주장은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다. 시간은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니, 하늘아래 끝끝내 숨겨질 비밀이란 없는 법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일은 순리대로 풀리고야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루 속히 식품 업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 되어 출혈경쟁, 인신공격등 먹구름이 개어서 명랑한 한인사회 구축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

주한미군력 강화
북괴군비·침략성 대비

(워싱턴9일=연합) 미국은 북한군의 증강에 대처 주한미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유로는 북한이 무력통일의 야욕을 버린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9일 미합동참모회의 의장 데이빗·존스 장군이 말했다.

존스 장군은 국회에 보내는「군사정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비록 한국이 국방을 위해 많은 군대를 양성하고 있으나 북한의 군사력 증강으로 강력한 미전투및 전술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관여를 정당화한다고 유의한 그는 미국은 지난 30년 이상 우방과 잠재적 적들에게 미국의 이러한 결의를 보여 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한국의 군사력은 지난 10년동안 줄어들었으나 화력, 이동및 통신은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화력은 개량된 탱크, M-16자동소총, 야포부분품, 대탱크 유도미사일, 대공포와 미사일및 로켓발사기등의 획득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한국해군은 지난 5년간 점차 장비를 늘렸으며, 해안경비력도 미국으로부터 최신 쾌속경비선의 획득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개선에도 불구, 아직 한국해군은 노후된 함정과 장비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군으로 넘어가 보고서는 한국은 71년도에 시작된 군장비 현대화계획 이후 한국공군의 방어와 공격능력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70년에 F-4D, 75년에 F-5ES와 같은 전투기 도입은 전투능력을 급속히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해에 극동아시아및 태평양지역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존스는 미국은 현재 서부유럽보다 태평양및 극동아시아지역 의 국가들과 더 많은 무역을 하고 있으며, 몇몇 태평양및 아시아우방과는 방어조약을 맺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지역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깊은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적인 군사력및 영토확장을 꾀하는 소련과 북한의 군비 확장과 침략성향및 캄푸차에 대한 베트남의 침범 때문에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회장에 윤택순씨
중앙고동창회 총회

토론토의 중앙고교 동창회(회장 김대일)는 1월30일밤 한국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임원개선을 했다.

또한 새해 첫사업으로 7일 밤 10시 한국관에서 모교교감을 지낸 김형석씨(연세대 교수)와 최승락외환은행장(44회 졸업)의 환영파티를 가졌다.

◇새로 뽑힌 임원

회장 : 윤택순 교수
부회장 : 김명정
총 무 : 최남권
섭 외 : 김성배
체 육 : 강 웅

중국·미국·일본·독일인의 순
한국내외국인 4만6천명

(서울8일=연합) 한국에 거류하는 외국인 총수는46,192명 이라고 한국일보가 7일 최근 집계된 이민 통계를 인용 발표했다. 여기에는 60일 체류비자를 받은 외국인들도 포함된다.

〈한국일보〉에 의하면 중국인이 거류외국인 총수의 63.3%를 차지, 가장큰 집단을 이루었으며, 다음으로 미국인(20.3%), 일본인(5.8%), 독일인(1.1%)의 순이다.

비록 한국은 해외이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있으나 이들 중국인은 그들이 원하는한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으므로 매3년마다 비자를 갱신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것과 다름 없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한국 거주이유로서 62.8%가 영주이며, 다음으로 상용, 종교활동, 기술보조및 투자의 순이다.

동신문에 의하면 80년말 현재 한국에는 25개국에서 1300여명의 선교사가 들어와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 구교와 신교배경이다.

선교사들 가운데 미국인이 가장 많은 850명이고, 다음으로 에이레인(53), 캐나다인(33), 프랑스인(27) 멕시코인(26) 순이다. 이태리, 서독, 오스트렐리아, 영국및 스페인에서 온 각각 20여명 안팎의 선교사도 한국에서 활동하고있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네델란드, 스웨덴, 남아공화국, 필리핀, 벨지움, 알젠티나, 스리랑카, 아일랜드, 인도및 파키스탄도1~2명의 종교관계인을 한국에 보내고 있다.

프랑스, 캐나다, 서독, 오스트렐리아, 영국에서온 10여명의 외국인은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불교 사원 송광사에서 불교의 금욕주의를「선」을 통해 몸소 실천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의 최근이슬람교의 성장은 주목할만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리비아정부는 한국에 인도, 파키스탄, 태국인으로 구성된 5명의 회교 지도자를 보냈다.

문선명의 통일교는 한국에서 설립됐으나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 신흥종교를 선전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등 여러나라에서 왔다.

◇로스앤젤레스의「희망의 합창단」이 최근 한국일보지사 강당에서 열린 노년을위한 음악콩클대회에서「희망외속삭임」을 부르고있다. 작년 10월 남가주 한국노년회소속으로 창단된 이 합창단의 유일한 남성멤버는 단장 정용백(오른쪽)씨 뿐이다.

매혹의 저음가수
배 성 : 특별출연
기 간 : 2월18일부터
매주 목, 금, 토, 일
오후8시30분부터
히트곡 : 사나이부르스
망 향
기적소리만
향 수
무정한 여인등 20여곡

거 구 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파티 예약환영
영업시간 :
평일 오전11시~새벽2시
일요일 오전11시~새벽1시
밴 드 :
목, 금, 토, 일
저녁8시30분~2시까지
권순근과 그의 악단
5 BETHRIDGE RD.
742— 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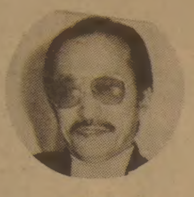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 752-7771

협회상담실 가동

강공선씨 실장취임으로



◇강공선 씨

협회가 그동안 우선사업으로 추진해온 회원 Complaint 전담상담실의 설치작업이 강공선씨의 실장임명으로 완료되어 정상가동되기 시작했다.

이일을 시급히 서둘러온 협회임원들은 상담실장 채용공고를 통하여 적격자를 물색하여 오던중 유일한 응모자로 서류를 기일내에 구비하여 제출한 강공선씨를 채용, 임명함으로써 일단락된 것이다.

상담실장으로 발탁되어 수고할 강씨는 이미 교포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활동을 통하여 봉사하기를 즐기는 분으로 유창한 어학실력과 원만한 성품으로 그 직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 취임한 강실장의 활약이 크게 기대된다.

강공선(Kong Seon, Kang)
1931년생
195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62년 육군통역장교 제대(대위)
1970년 서울 선양산업주식회사 전무로 근무
1971년 캐나다 이민
1971년 한인회 부회장, 씨알한국인학교 이사장, 캐라반운영위원장, 한인장학재단 이사장(5월 취임예정)

강실장은 약 7년간 백커스토어를 경영한 경험을바탕으로 일반 코너스토어의 애로사항을 깊이 아는 산지식과 현직 교회장로로서 갖추어진 신앙적인 원만한 성품으로 회원들의 항의, 불만, 불평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처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는 협회 예산관계로 파아트타임 근무(매일 12시~5시)지만 곧 풀타임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회원들은 애로사항이나, 기타 어떠한 Complaint이든지 주저치 말고 연락, 상담하기를 바라며, 다 함께 협회의 기능과 권익보호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담용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면서

협회 집행부가 적극 추진하여온 Complaint 상담실 설치업무가 전담실장의 취임과 긴급, 비상용 핫라인(Hot line) 752-0171번 설치를 계기로 정상 가동하게 됨을 알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동안 업무의 폭주로 회원 여러분의 문제들을 미처 처리하여 드리지 못해 미흡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이제는 새로 가설된 핫라인(752-0171)을 이용하여 우리들의 권익을 보다더 신장시켜 협회를 발전시키는 과업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982년 2월8일
한인실업인협회장 올림

핫 라 인 : 752-0171
상담시간 : 12시~5시(매일)
상 담 자 : 강 공 선 상담실장

—집행부 동향—

1982. 2. 5(금) : 집행부 월례임원회(전원 참석) 사업계획서에 의한 연중행사 계획표 작성, 주소록발간작업을 위한 회원 스토어 방문스케줄 결정.
1982. 2. 8(월) : Rosen Dairy와 큰 볼륨 밀크스토어에 대한 Rebate고려 검토
(현재 일부회원중 작은 그룹을 형성하여 밀크리베이트를 더 받으려고 협회를 탈퇴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심각히 고려돼야 하기 때문임)
※Rosen Dairy에서 K. B. A. 회원들에게 Promotion제공.
Yogourt oz당 45¢(홀세일 코스트)
2월15일부터 2월27일까지 실시.

협회사무실 이전 확정

—4월15일 예정—

지난 제1차 정기 이사회가 결의, 추진하여 온 협회사무실 이전문제는 구체적내용이 확정되어 드디어 4월15일경 블루어스트리트 한인상가지역에 개점하는 캐나다외환은행 지점 건물 2층에 옮겨가기로 결정을 보았다. 이사회의 결의를 따라 더 좋은 후보지가 있는가 백방으로 물색했는바 외환은행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가장 유리하여 이 문제의 타결을 보고, 공식발표케 된 것이다.

새 사무실의 크기는 약 일천 스퀘어피트이며, 월세도 현 한인회관 관리당국에 지불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파격적인 것이라한다.

사무실 이전문제가 대두되기는 이미 오래전으로 협회가 성장하고 기능이 확대됨으로 취급하는 업무가 확대되고, 수시로 회의가 소집되며, 다양한 협상미팅이 진행되어 외부손님이 늘어나게 되어 방대한 회원을 가진 협회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빈약하여 시급하게 적당한 후보지를 찾아온 것이다.

사무실이 이전확대되면 회의실이 마련되어 자체회의 장소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임원들이 사무실에 나와 상주할 수 있게 되고, 회원들이 방문하여 용이하게 업무나 기타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데에 뜻이있다.

한편 외환은행 측에서도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협회와 맺어 회원들과 유대를 갖게 하고, 재정상의 도움을 주고 싶어 그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최승락 행장은 밝히고 있다.

또한 은행에서는 실협회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융자나 기타 여러가지 편의를 배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꽁뜨〉

두해사이의 거리 (상)

조 정 대
(문인협회장겸 실협이사)

◇조정대씨

경찰서문을 나서면서도 역시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구잡이로문을열고 들어서기란 여간위험한일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바깥공기는 차가왔다. 듬성듬성 헛뿌리는 눈발사이로「41 Police divison」이라씌인 노오란 아크릴 싸인이 흐릿하게 보였다. 안경을 급히 벗어들고 긴 성에를 옷섶에 닦았다.

밤11시47분. 잠시후면 또 한해가 가는구나 하는 따위의 한가로운 생각은 할 겨를도 없이 급히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히터를 넣었다. 술기운이 확 돌았다.

아내한테서 전화를받고 서둘러 선생님댁을 나설때만해도 정신이 없었다.

「여보 이를 어쩌지? 가게문은 분명히 잠그고 왔는데 아무래도 께림칙해요. 아이참 이를 어째!」

「무슨소리야 그게? 문을 잠갔으면 그만이지, 뭐가 어쨌다는거야!」

「그 있잖아요 존, 매일같이 액스포오트 시가렛 페이퍼 사는 건달말이야.」

「그래서 어쨌다는거야?」

가슴이 섬뜩했다. 망나니 존은 내가 모를리 없었다. 「아니야, 정말 큰 일이야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석이 가게에서 나간것 같지를 않아.」

「뭐!」

정신이 아찔했다. 반사적으로 일어서면서 주머니속의 열쇠꾸러미를 확인했다. 녹쓴 열쇠조각하나 없이도 잘만살던 멀쩡한 놈이 이민인가와서 기계가 다됐구나 하는생각은 나지도 않았다.

「김군 서둘지 말게나. 그리고 혹시 위험한 일이라면 경찰서에 꼭 들르게.」

「선배님, 저도 같이 갈까요? 무슨일인지 몰라도…」

이런 환란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이 후회되지는 않았다. 엇비슷한 또래의 동창들이 옛 고등학교시절의 은사님을 모시고 송년회를 갖는다는것은 여러모로 뜻있는 일이었으니 말이다. 그것도 매년섣달 그믐날밤 은사님 내외분께서 손수 베풀어주시는 정성이고 보면 차라리 송구스러움만 남을 자리었다.

「아니야 아니야, 다들 열심히 마시기나 하라고. 선생님, 저 곧 다녀오겠읍니다」

막상 복도를 걸어나오면서는 정신이 얼떨떨했다. 차문을 열고 자리에 앉으니 답지않게 겁까지 나기 시작하던 것이 이제는 다소 마음이 놓였다. 눈발은 아까보다 다소 성긴 듯 했다.

눈내리는밤은 포근하다는데 오늘밤은 그런것 같지가 않았다. 히타를 켰는데도 차창유리는 온통 얼음으로 얼룩진 세계지도와 만국기 투성이다.

조심스럽게 차를몰기 시작했다. 보통때면 오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게까지의 거리가 한 십리는 되는 성 싶었다.

지난봄, 그해들어 처음으로 골프를나간 그 다음날 아침이었으니까 4월초순쯤일까. 고향의 봄도 이랬던 가싶게 화사했던 어느봄날 아침 아홉시가 조금이른시각에 문을열려 가게에 나갔다.

그런데 이게 어인일인가 문은 이미 열려있지않은가, 뒷문으로 쫓아가 봤다. 아무일 없었다. 빗장도 그대로였다. 카운터옆 오른편의 초코렛과 껌통속이 온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있을 따름이었다.

그만하기 다행이구나 싶었고, 아마 동네 조무라기 몇놈이 정신없이 쫓아다녔으려니 짐작하고 그때는경찰도 부르지 않았다.

모두가 내탓인걸 별도리가 없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일 후부터 내게는 병아닌병이 생겼으니 내 아내가 명명한 병명인 즉「문 확인 의심증」이 곧 그것이다.

잠그고 두어번 당겨보고 차 시동걸어놓고 다시와서 또 당겨 보고 했다. 그러다가 술이라도 한잔 걸친 날 밤이면 그것도 못미더워다시 확인하러 자동차를 몰고 가게까지 간적도 한두번 있었으니 이제 병치고는 중병에 접어든느낌이다.

그러나 오늘밤 사건은그것들과는 아주 딴판의 것이었다. 쌀독 안에 십년묵은 쥐를 넣어두고 그냥 왔다니, 이제 보험도 문제거니와 꼼짝없이 앉아 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프라자에 가까와지면서부터는 더욱 정신이 바짝 들었다. 천천히 그리고 딴에는 침착히 배달이나 하는 어슥한 가게 뒷길로 헤들라이트를 끈채로 차를몰았다. 차에서 내려 숨을죽이고 뒷문을 향하여 발을 떼어놓을 때는 몹시 긴장되었다.

밟히는 눈소리 때문만은 아닌 듯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과 잡아 당길 때는 더욱 그랬다. 그런데 문은 잠겨 있었다. 다행 이었다.

다시 건물을 반대로 돌아 가게 정문앞에 차를 세우려는 찰나 거의 동시에 두대의 경찰차가 도착했고, 잠시후 또 한대의 경찰차가 싸일렌을 울리며 달려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떨리는마음에 앞문마저 확 열고 들어설 용기는 참말로 없었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Hammond and Company
Accounting, Tax and Management
JOSEPH HAMMOND
TEL. 496-0366
37 HAWLEAF CRESC.
WILLOWDALE, O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죠셉 하몬드입니다. 저는 19년간의 어카운팅업 종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실업인협회 회원들의 어카운팅, 또는 북키핑 써비스로 봉사하기를 열망합니다. 신속 정확하고, 특히 세무감사에 대한 대비에 많은 경험이 있읍니다.

학 력 American University Lebanon Diploma, B.A. 자격 R.I.A.자격 Certificate for proficieney in Economics from London chamber of commerce.
경 력 19년 Worked with large firms of chartered accountants Arthur & Anderson (4년) Dunwiidy co (2년) Owner of Hammond & company, AccountNG and Tax firm (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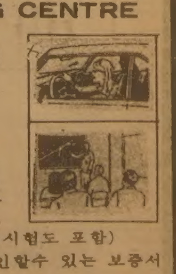
WEDDING DREAMS LTD.
결혼에 필요한 모든준비가 되어있읍니다. 들리기만 하십시요.
● 웨딩가운 TUXEDO렌트 또는 세일
● 사 진
● 초청장 주문
● 꽃어랜지
● 결혼케익등

811 DUNDAS ST. W.
365 : 0995

京 華 樓
(경 화 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 진미의 해산물 요리
● 국수, 야채전문
●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X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 199.00)
● 25시간의 실내강의
●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 인캄텍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 69.00)
● 3번의 운전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 15.00)
● 한번의 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 15.00
All Courses Approved & Registered by the Ontario Safety League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6시30분, 토 : 9시~1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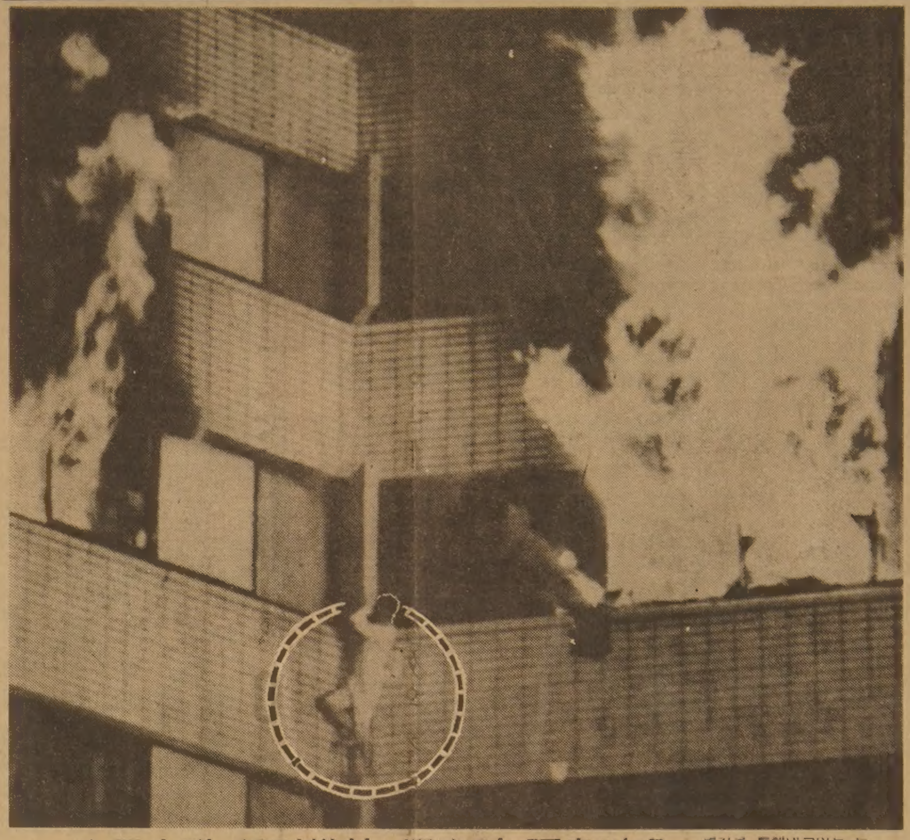
東京 뉴저팬호텔에 큰불

한국人 8명 死亡·失踪

金泰東씨(前보사장관)등 6명死亡 확인

2명은失踪 10명은負傷 입원

8일새벽發火 한국研修團34명、9·10층 투숙



◇투숙객 32명犧牲…深夜의 阿鼻叫喚 불길을 토해내고있는 뉴저팬호텔。파자마차림의한 투숙객(점선내)이 객실칸막이에매달려필사의탈출을시도하고있다。그러나 이투숙객이 구조됐는지의여부는알려지지않았다。【東京 8 日AP聯=聯】

【東京8日=본사臨時取材班】東京 도심에 있는 호텔뉴·저팬에서 심야에 불이나 4백15명의 투숙객중 한국인6명을 포함한 투숙객 32명이 사망하고 64명이 부상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불은 8일 새벽3시30분께 東京千代區永田町에 있는 호텔 뉴·저팬 9층에서 발화、맨위층인 10층으로번졌는데 마침 9·10층에 단체투숙중이던 제1회 란체스터방일 경영연수단원17명과 한국마키팅방일연수단원 17명등 한국인투숙객 34명중에서 金泰東씨(64·前보사·체신부장관、란체스터연구소회장) 崔正玹씨(46·란체스터소장) 李柱興씨(47·金星社영업담당상무)등 6명의 사망이 확인되고 徐東金씨(52·롯데칠성상무)등 2명이 실종、10명이 부상하는등 외국인투숙객중 가장큰피해를 입었다。

이날불은 9층과10층의 절반이상을 태우고 6시간만인 9시30분께 진화됐다。사망자와 부상자들은 대부분9층과 10층 투숙객들로 잠이 깊이들어있었고 비상벨도 울리지않아 대피를 하지못해 인명피해가 많았다。

화인조사에 나선 東京경시청과 소방청은 호텔의 방화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않은데다가 건물구조가 낡아 전기누전에의해 불이 순식간에 번진것으로 보고있으나 정확한 화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호텔9층 룸서비스계의 와따나베·가즈오(渡邊和夫·32)씨에 의하면 938호실 투숙객 메이커씨(영국인)가 『헬프미』라고 외쳐 달려가보니 931호실과 938호실사이의 복도에 연기가 가득차있었다고 말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불이나자 9층과 10층의 투숙객들은 불길과 연기가 치솟는 호텔방의 창문을열고 밖으로향해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며 침대시트를안고 뛰어내리거나 침대커버를찢어 줄로이용、아래층으로 매달려 탈출하다가 옷에 불이붙은채 실족하는등 아비규환의 대소동을 빚었다。

불이난 이호텔은 지난60년 완공이후 스프링클러등 소방시설이 미비해 東京소방청에의해 여러차례 개수명령을 받았으나 적자운영으로 개선하지못했다는것。호텔은 특히 한국인경영의 술집이 몰려있는 유흥가 아까사까(赤坂)지역의 한복판에 위치한데다 한때 재일교포실업인 朴龍九씨가 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한적이있어 평소 한국인 투숙객이 많았다。

◆본사 東京臨時取材班
▲金忠潢 東京支社長
▲宋孝彬 특파원
▲文昌宰 기자

◇金泰東씨　◇崔正玹씨　◇趙淳씨　◇李柱興씨　崔基玹씨　◇金南順씨　徐東金씨　安茂正씨

모두 4백15명 投宿 9·10층만 불타

이날 호텔에는 한국인단체투숙객과 함께 자유중국관광객、일본인 신혼부부등 모두 4백15명이 투숙하고 있었으며 불탄 9、10층에는 1백8명이 투숙해 있었다。

◇사망=▲金泰東씨(64·前보사부장관·란체스터전략연구소회장)▲崔正玹씨(46·란체스터소장·서울永登浦區汝矣島洞대교아파트3동1103호)▲崔基玹씨(55·란체스터편집위원)▲李柱興씨(47·영업담당상무이사)▲金南順씨(28여·란체스터한국지점장)▲趙淳씨(39·한국공업협동조합과장)

◇행방불명=▲徐東金씨(52·롯데칠성음료상무이사)▲安茂正씨(53·도성상사대표)

◇부상=▲金貞姬씨(36·란체스터주임연구원)▲金聚式씨(44·호정한의원원장)▲李相信씨(54·順愛의원원장)▲金鍾赫씨(48·동아제약상무)▲方基泰씨(38·라미화장품중앙대리점대표)▲李敎福씨(41·은성사대표)▲具河書씨(54·成大무역대표)▲林重主씨(39·동아제약과장)▲鄭德浩씨(34·세방기업대표)▲趙禹凌씨(46·오류시장대표)

◇무사대피=▲尹鍾根씨(47·반도패션明洞대리점대표)▲李重基씨(41·東洋보일러대표)▲南宮炫씨(45·OB시그램대표)▲申長潤씨(51·서진상사대표)▲宋吉慶씨(44·한남화학이사)▲林成씨(43·해태제과이사)▲林鍾夫씨(39·OB시그램관매부장)▲李鍾泰씨(34·한화기획과장)▲金根澤씨(44·신한출판사대표)▲金春益씨(34·동인산업이사)▲金世煥씨(39·아람사부사장)▲閔廷保씨(38·뉴취미양복점대표)▲白貴善씨(41·동진사대표)▲韓宇柱씨(40·삼성전자과장)▲洪敏彦씨(39·삼양타자사장)▲黃福鎭씨(34·이동삼정밀공업과장)

전국민 團合하면 80年代 統一확신

全대통령 "돈으로 萬事해결생각버려야"

◇全斗煥 대통령이 일요일인 7일낮 西歸浦市政보고를 받은뒤 도보로 시내를 시찰하고있다。

濟州道일원 視察

【濟州=尹國炳기자】全斗煥 대통령은 일요일인 7일 상·하오에 걸쳐 濟州市와 西歸浦市등 제주도일원을 시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승용차편으로 濟州市에서 西歸浦市에도착、金泰洙시장으로부터 市政보고를 받은뒤『우리는 여러면에서 北韓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만큼 전국민이 단합하면 80년대에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 질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모든 국민이 단합해 경제력을 늘리고 國力을 신장시켜나가면 반드시 南北韓을 자유롭게 왕래할수있고 北韓사회가 개방되는 시기가 올것』이라고 밝히고『모든 공무원과 국민들은 통일을위해 모든 정력과 노력을 집중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오는 86년의 아시안게임、88년의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위해 전국민이 질서의식을 높여나가고 禮儀를 지키며 깨끗한 주변정리를 생활해나가는 습성을 길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손님이 다시오고싶은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척결을 거듭 강조하면서『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결할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배격되어야한다』고 밝히고『특히 公職者는 公과私를 엄격하게 구분、人情등에 쏠려 일을 그릇되게 처리해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공무원들이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쓴다는 절약정신이 생활화될때 처우개선이나 복지면에서 절약하는 만큼의 댓가를 얻을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모든분야에서의 물자절약을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시정보고를 받은뒤 西歸浦의 일반음식점에서 관내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제1횡단도로를 넘어 濟州市에 도착、전용기편으로 이날하오 歸京했다。

美、戰鬪力투입強化

"韓半島·유럽등서 戰爭발발하면"

레이건、豫算教書서 밝혀

【워싱턴7日=聯合】레이건 대통령은 6일 美정부가 총 7천5백76억달러에 달하는 오는 83회계연도 예산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중시한 대목의 하나는 한반도나 기타분쟁예상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쟁발발 최초 30일이내에 요구되는 미국의 전투부대나 지원부대의 투입능력을 향상강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의회에 보낸 예산교서를 통해 현재로서는 한반도나 유럽또는 東南아시아및 페르시아灣에서 예상되는 외국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미군의 전투 또는 지원부대의 투입이 여의치 않은 상태라고 지적、이와같은 취약점을 보강하기위해서는 한반도와 같은 분쟁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한지 최초의 30일이내에 미군의 투입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뿐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83년도 미국방예산가운데 44억달러로 오는90년대까지 미군의 항공수송능력을 강화하기위해 C5수송기및 KC10A급유기구입과 한반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할경우 본토의 병력이 도착할때까지 동남아근해에 정박하면서 우방지원을 담당할 4척의 폐속병참지원함구입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미국방성의한대변인은 83년도 미국방예산가운데 한국에 책정된 대외군사판매차관(FMS)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측은 對韓FMS가 총1억6천5백만달러에 달할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軍用機 추락경위등 國防委서 청취요구 民韓

民韓黨은 8일 濟州道 軍用機추락사고경위를 청취키위해 국회國防委 전체회의와 간담회를 소집토록 요구했다。

國防委 民韓黨측간사인 鄭鎭吉의원은『金永先 國防위원장에게 이같은 民韓黨측의 의견을 전달、국방부와 절충해 보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社会漫評

"그쪽「非常口」도 어지간 하구려…"

地平線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16세기초를 빛낸 기생 황진이는 그의 사랑을 한편의 시로써 고백했었다。이무렵 서양에서는 손수건이나 장갑을 떨어뜨려 사랑을 고백하는게 품위있는 상류사회 아가씨들의 풍속이었을 때였다。20세기도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은 어떨까? 한국의 젊은이도、하게 시를 읊을 그렇다고 손수건이나 장갑을 떨어뜨릴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됐다。▼근래 서울에서는 전화로 짝을 찾는 「폰팔」이 유행하고 있다 한다。심심풀이 편지를 주고받는것보다는 목소리를 주고받는 편이 훨씬 빠르고、실감이 나기때문일것이다。폰팔을 소개해주는 상담소가 시내에 10여개는 된다는 진작이다。대도시의 시대요、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있는 젊은남녀들의 새로운 생활풍속도라고 할 수 있다。세상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는 것이다。▼「데이트」란 말하자면 결혼시장에서 남녀들이 자유롭게 흥정을 벌이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폰팔은 이중에서 우선 전화로 이용하는 단계다。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데이트라는 자유경쟁방식이 뿌리내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다。그중간형태로 소위「중매 반·연애 반」이라는 엉거주춤한 방식이 상적인 형태로 꼽히는 시대다。▼전국의 연고졸업반학생 2백90명에게 물어봤더니 45%가「중매·연애 절충방식」을 원했다는 조사보고가 작년 8월에 나왔었다。30~50대도시주부들의 76%가 자식의 결혼은 절충식으로 하겠다는 의견이라는 조사보고도 4월에 있었다。그러나 이경우에도 부모의 뜻이 먼저냐、당사자들의 뜻이 먼저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수있다。▼대학졸업이상의 미혼남녀 4백명에게 알아봤더니 대부분당사자가 골라 부모의 승낙을 얻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는 보고가 4년전에 있었다。최근에 나온 연구「서울가족에 관한 연구」(李東媛교수)에 의하면 부모가 앞이고 본인이 뒤였다한다。부모가 골라 본인의 의사를 듣는다는게 37.8%인데「반대」는 32.3%였다。그 점은이의 입장과 모의 차이라고 하겠다。▼이번에 나온 보고는 서울시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알아본 결과다。23년전에 비해 낳고싶은 자녀수도 5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한다。가족계획에 관한 인식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증거다。크게는 인구문제에서부터 노인·청소년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될 일이 만만치않다는 것이 비교연구에서 알수있다。가정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공식기관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P
922-3111 (B)
791-8196 (R)

제 1 회
남·녀 배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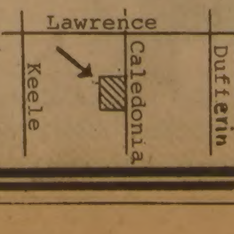
종　목 : 남자부, 여자부, 남자 O, B. (전원 만30세이상 이어야 함)
일　시 : 2월27일(토) 오전8시30분
장　소 : RYERSON POLY TECHNICAL INSTITUTE
신청장소 : 브랜든 운동구점(598-3732) 정기섭(755-0308)
주장회의 : 2월26일(금) 오후7시 브랜든운동구점에서 모임 337 BLOOR ST. W.
참 가 비 : 팀당 $50(참가비는 주장회의 날까지 납부)

주최 : 브랜든 운동구점
후원 : 민중신문
토론토한인배구협회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Feb.8-Feb.20		Spec.
Dare bag candy	12x 1.29	9.19
Y & S twizzler	70x5¢	1.85
Hersey almond choco " peanut butter cup	36x40¢	9.29
Moirs valentine cinnamom hearts	24x40¢	5.05
" " marshmallow hearts	24x40¢	5.05
Allans devil top tub	48x10¢	3.16
Allans 2/5¢ kiddie pops	240ct.	3.95
" " " "	101ct.	.90¢
Planters mixed nut	350g	3.55
" cocktail peanut	350g	2.05
O-Pee-Chee bazooka grape,peroo,cherrgum	36x10¢	2.37
Delsey toilet tissue paper	24x2's	17.45
Hi-dri towel	18x2's	17.99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감사말씀

지난 1982년 2월5일(금) 오전 10시3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고 양해삼 권사님의 영결식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유가족 :
사위 : 이 찬 근
딸 : 이 화 순 드림

秘錄 現代史의 發掘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1>

民政이양 ①

"다시는 이나라에 本人과 같은 不運한 軍人이 없도록 합시다"

1963년 8월30일. 태풍 사라호의 악몽이 채 가시지않은 늦여름의 芝浦里에는 아침일찍부터 승용차의 물결이 일었다. 강원도 鐵原郡葛末面芝浦里 제○군단기지에 이처럼 많은승용차가 몰려든것은 처음있는일이다. 상오10시30분께가 되자 기지연병장에 마련된 단상에는 최고회의간부, 정부각료, 주한외교사절과 韓美軍고위장성들로 자리가 찼다.

30분뒤인 상오11시정각, 金鍾泌국방장관과함께 최고회의의장 朴正熙육군대장이 4星의마크를단 승용차에서내려 단상에올랐다. 5·16혁명으로부터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2년3개월동안 軍政을이끌어온 朴의장의 轉役式이 거행되는 순간이었다. 이순간은 軍政을마감하고 제3공화국의 民政으로 접어드는 길목이기도 했다.

21발의 예포가 울려퍼지고 사열이 끝나자 朴의장은 서서히 연단앞으로 다가섰다. 建軍으로부터 17년간, 그전 滿洲군관학교로부터 따지면 21년간의 군복생활을 청산하는 朴의장은 감회에 젖은듯 잠시 연병장주변을 응시했다. 이윽고 특유의 낭랑한 목소리, 그러나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군사혁명이란 불행이 다시는 이땅에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군사혁명을 일으킨 한책임자로서 2년간에 걸친 軍政에 종지부를 찍고 허명의 악순환이 없는 조국재건을위해 다음 民政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읍니다. …민족적 주체세력을 이룩해 남은 반생을 조국재건을 위해 바치겠읍니다』

朴의장은 말을 맺는듯했다. 그러나 다시 이어졌다.

『…다시는 이나라에 본인과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이 한말은 그후 두고두고 「名言」으로 남는다. 한 인간으로서는 크고 작은 회한들이, 또 역사의 맥락에서 볼때는 장기집권의 汚辱으로 접어드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분열이 끝나고 군악대의 이별의 노래가 은은히 울려퍼졌다. 부인陸英修여사와 함께 일어선 朴의장은 하얀 손수건을 꺼내 흥건히 괸눈물을 닦아 냈다. 육군항공대편대가 5色연막을 뿜으며 석별비행을했다.

史上최대 轉役式

芝浦里전역식은 육군○개전투사단과 공군전투기 편대가 동원되는 建軍이래 최대규모였다. 이날 저녁 워커힐에서는 송국방장관주최로 朴의장이 군에서 떠나는 것을 환송하는 환송파티가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이날의 이두 행사는 마치 제3공화국탄생의 前夜祭와도 같았다.

○사단장과 ○사단장을 지낸 朴의장이 전역식장소로 芝浦里를 택한데는 단순히 교통때문이었다. 朴의장은 전날 이렇게 설명했다.

『전역식은 과거 내가 직접 지휘했던 ○사단과 ○사단장병들이 있는곳에서 하려고 했는데 동부전선이라 교통이 너무 멀어 芝浦里에서 하기로 했지』

朴의장은 군복을벗기 열흘전인 8월20일 지난날 자신이 參戰, 복무주둔했던 ○軍휘하의 전방○개군단 지역 6백81㎞(1천7백里)를 승용차편으로 告別시찰했다. 그는 抱川군방○군단에 들러 丁來赫군단장(현국회의장)등 지휘관들에 『언젠가는 벗어야할 군복이나 막상 벗으려니 서운하다』면서 『前方지리는 눈감고도 훤한데…』라며 감회에 젖었다. 朴의장은 가는곳마다장병들에게 軍의 정치적중립을 강조했다.

『軍이 정치적중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군을 아끼는 정치인의 정신과 軍이 다시는 그들에게 이용당하지않는 軍자체의 자세가 세워져야한다』

轉役이틀후 朴의장은 한국일보에 특별寄稿를 통해 옷을 벗는 심경을 술회했다.

『救世濟民한다는 숭고한 이념하에서 궐기한지도 어언2년반, 나의 꿈은 몇분의1이나 현실화됐으며 우리가 계획한 設計圖의 어느정도를 실천했을까. 확만이 앞선다. 책임감을 느낀다. 이대로 손을 떼고 물러설것인가. 어느정도 기반이 닦아진 혁명과업의 공든탑이 무너지는것을 느끼는다. 「가다가 중지곧하면 아니감만 못하리」「중이 고기맛을 본것이다」는등의 비방하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政權을 고기로 인식하는 말일게다.

그것이 과연 고기같이 맛있는 것일까. 泰山이 찍어누르는듯한 重壓感 그것이 고기맛이라면 꿀같이 단것은 무엇일까. 나에게는 그것이 소태같이 쓴것으로 느껴지니 웬일일까. 쓰지만 피할수없는 盞이다…』

전역식이 있은 그날 하오 4시30분.

轉役式당일 共和입당 10.15大統領선거전

"最高會議議長으로서 入黨은 違憲"시비、이틀후 非常措置法 개정

鄭씨가 入黨保證

4星장군의 예복을 벗고 회색양복으로 갈아입은 朴의장은 환한 얼굴로 서울역앞 舊세브란스병원에 있는 民主共和黨당사에 나타났다. 鄭求瑛총재, 尹致暎당의장의 안내로 2층 당무회의실로 올라간 朴의장은 미리준비된 共和黨입당원서에 서명, 拇印을 찍었다. 入黨보증인은 鄭求瑛총재, 당원번호는 7 0 6 6 1 2. 軍權과 民權의 대결로 일컬어지는 10.15 대통령선거의 敵戰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입당원서에 拇印을 찍은 朴의장은 보증인인 鄭총재에게 『사고가나면 보증인이 책임져야지요』라며 조크를 했다.

그러나 이 농담은 끝내 역사의 아이러니가 되고 말았다. 朴의장의 보증인이었던 鄭총재는 훗날 3選改憲을 앞두고 그에게 정면 도전장을 냈다.

대통령권한대행과 최고회의의장직을 갖고 입당한 朴의장의 共和黨입당은 違憲論의 불씨가 됐다. 違憲시비는 선거전중에도 계속된다.

朴의장의 共和黨입당 3일뒤인 9월2일 民政黨등 재야정당들은 일제히 違憲論을 들고 나왔다. 違憲論의 주장은 이렇다.

『朴의장은 대통령권한 대행직에 있기때문에 대통령의 정당 가입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헌법 53조3항에 어긋난다. 또 최고회의의장직은 현행 국회법에 의한 국회의 相當職이므로 국회의장이 黨籍을 가질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법제19조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정당 가입은 違憲·違法이며 共和黨입당도 당연히 무효이다』

여기에 최고회의와 共和黨측은 대통령과 「대통령권한대행」은엄격히 구별돼야 한다고 맞섰다. 당시 최고회의 吉在號법사위원장의주장이다.

『舊憲法 53조3항은 살아있으나 이 조항이 규정하고있는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고유의 대통령과 최고회의 의장직을 가진채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대통령과는 엄격히 구별돼야한다… 또 새로 제정된 정당법과 선거법에는 「최고위원은 정당에 가입할수있다」고 돼있는만큼 최고회의의 의장 역시 최고위원이므로 黨籍을 가질수있다』

違憲시비가 이렇게 맞섰으나 최고회의는 결국 이튿날인 3일하오 최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전격적으로 개정, 朴의장의 입당을 適法化했다.

개정내용은 예비역군장교인 최고위원 (의장포함)은 정당 또는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임원에 취임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앞서 朴의장이 共和黨대통령후보로 지명된 것은 입당 다음날인 8월31일.

이날 상오 서울시민회관에는 2천9백93명의 전국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화당 제3차 全黨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대회가 한창 진행돼 막판에 이를 무렵 朴의장이 평당원으로 등장, 대통령후보지명수락연설을 했다.

分裂된 在野세력

『스스로의 결단과 용솟음치는 의욕을 가다듬으면서 공화와 번영의 新天地 건설을 위해 대통령후보지명을 정식으로 수락한다』

공화당은 이로써 激戰의 10·15 대통령선거전 채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고 장기執權의 문턱에 들어선 셈이다.

공화당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비해 이에 맞설 在野세력들은 泥田鬪狗 상태였다.

단일후보옹립운동을 벌여온 在野세력은 民政黨 主流派인 柳珍山씨가 9월2일 돌연 대통령출마 포기선언을 했던 尹潽善씨를 후보로 추대하겠다고 선언, 支離滅裂 됐다. 결국 民政黨系는 9월12일 별도의 黨대회를 열어 尹씨를, 「국민의당」도 14일 全黨대회를 열어 許政씨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함으로써 在野대통령후보는 亂立을 면치못하게 됐다. 15일 대통령후보등록마감 결과는 共和黨의 朴正熙후보, 民政黨의 尹潽善후보, 「국민의 당」의 許政후보, 獄중 출마한 自由民主黨의 宋堯讚후보, 正民會의 卞榮泰후보, 秋風會의 吳在泳후보, 新興黨의 張履郁후보등 7명이나 됐다. 그러나 선거도중인 10월2일 許政후보, 7일 宋堯讚후보가 각각 자진사퇴함에 따라 선거양상은 朴후보와 尹후보간의 대결로 좁혀졌다.

朴—尹후보의 선거전은 史上유례없는 치열한 격전이었다. 제3공화국탄생의 진통이 그만큼컸던것이다.

당시의 선거양상을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대한민국政黨史」(73년版)는 이렇게 적고있다.

『軍政과 民政의 대결장이라는데서 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共和·民政양당은 모두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정강·정책을 내걸어 외관상 차이는 별로없었으나 소위 思想논쟁이 선거이슈화해 여·야간의 집권경쟁은 정책대결에서 떠나 朴후보가 상징하는 진취적 기질의 신진세력과 尹후보가 상징하는 보수적기질의 守舊세력간의 대결이었다.

치열한 思想논쟁

선거분위기는 朴후보의 정치적사상을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尹후보의 발언이 촉발한 사상논쟁으로 극도로 긴장되었고 후보자에 대한 자극적인 비방, 朴후보의 입후보등록 무효확인소송문제를 비롯한 상호告發戰, 그리고 「舊정치인이 집권하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한 共和黨 尹致暎당의장의 발언에 얽힌 여·야간의 舌戰등으로 험악한 공기가 한때 감돌았다…』

40여일간의 격전을 치르고 決戰의 날인 10월15일.

그날밤 慶州 佛國寺관광호텔 1 1 0호실에는 사뭇 긴장감이 돌았다. 호텔 1 1 0호실에는 격전을 치른 朴후보가 피로에 지친듯 부인 陸여사와 함께 들어 있었다. 『할일은 다했다. 조용히 심판을기다리겠다』는 말을남기고 朴후보가慶州에내려온것이다.

尹후보와 첫對決…開票계속 劣勢로 緊迫感

票뒤지자 일부側近들은 「生死의 갈림길」에! 「새로운事態」루머까지

◇『다시는 이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63년 8월30일 최고회의의장 朴正熙육군대장은 이한마디를 남기고 滿洲군관학교시절부터 따져 21년간의 군대생활을 청산, 民政에로의 첫발을 디뎠다. 轉役辭를 읽다가 萬感에 사로잡힌듯 잠시 입을 다물고있는 朴의장.

朴후보내외는 이날 서울에서 투표를 끝내고 경북읍1 1 3 7호와 3 5 8호 자가용 차편으로 하오에 佛國寺에 도착, 한식으로 가벼운저녁식사를 끝낸뒤 밤10시 10분께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수행원이라고는 李厚洛최고회의공보실장 朴鐘圭경호대장 池弘昌주치의 申東寬중령 뿐. 수행기자들도 따르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면서 開票상황을 중계하는 라디오소리가 1 1 0호실문틈으로 새나왔다. 李공보실장이 묵고있는 1 0 3호실에서는 개표상황을 보고하기위해 어디에선가 걸려오는 전화벨소리가 요란했다. 전화를 받는 李실장의 목소리는 떨리는듯했다. 이때까지만해도 朴후보는 尹潽善 民政黨 대통령후보에 지고 있었다. 다음날인 16일 새벽까지도 이런상태는 계속됐다. 심지어는 최고23만票까지 朴후보가 리드당하기도했다.

자정이 넘어서면서 1 1 0호실에서는 라디오소리조차 아예 끊겼다.

朴후보는 라디오의 스위치를 끄고 담담히 책을 들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1 1 0호실의 적막을 깨뜨렸다. 조금후 朴후보는 잠이든듯했다. 陸여사만이 밖으로나와 트랜지스터·라디오를 듣고 심각한표정으로 서성댔다.

뜬눈 佛國寺의 밤

李실장도 개표상황을 보고할수 없었다. 朴후보가 잠이 든듯한데다 지고있는 상황을 보고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밤을 꼬박 새웠지만 개표상황은 계속 尹후보가 리드했다. 지리하고 긴 「佛國寺의 밤」이었다.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난 16일 아침 9시30분.

李실장은 朴후보로부터 아침식사를 같이 하자는 전갈을 받았다. 이때만해도 朴후보는 7만표정도 뒤져있을때다. 李실장은 감히 식탁을 마주할수 없었다. 그러나 御命(?)이라 할수없었다. 주치의인 池박사와 함께 식탁에 마주앉았다. 근엄한 표정의 朴후보는 개표결과를 묻는게 아니라 대뜸 개표중 사고는 없었는가고 물었다.

『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票差는 크게 다른게 없는것 같습니다』

李실장은 차마 7만표가 뒤지고 있다는 보고를 할수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朴후보가 다시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었다.

『公明선거란 집권자가 떨어져도 좋다는 마음의 준비와 결심이 있어야지. …사실 나는 떨어져도 좋다는 마음의 준비가 돼있어…』

李실장은 죄를 지은듯한 심정으로 그자리를 나왔다. 묵고있던 1 0 3호실로 달려가 다시 라디오를 켰다.

逆轉드라마가 시작된것은 그후부터였다. 湖南지역의 득표함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朴후보가 尹후보를 누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朴후보와 尹후보는 엎치락 뒤치락의 시소를 벌였고 16일 하오 2시가 돼서야 朴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됐다. 선거史上最長의 시소게임이었다.

◇朴正熙의장의 轉役은 곧 民政參與를 의미했다. 芝浦里에서 大將轉役式을 마친 朴의장은 그길로 舊세브란스병원건물에있는 共和黨舍에 들러 入黨수속을 끝냈다. ㊨는 보증인인 鄭求瑛공화당총재 ㊧는 尹致暎당의장.

5·16보다 힘들다

『그날 새벽을 넘기는 5·16새벽 漢江을 넘어서는 일보다 더 어려웠고 지리했읍니다. …朴의장에게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첫 소식이 보고된 것은 16일 상오였지요. 朴의장은 逆轉보고를 받고도 특유의 웃음만 지을뿐 아무말도 않더군요』—당시 朴후보를 수행했던 한 측근의 회고다. 그뒤 국회의원을 지낸 이측근은 계속 이렇게 말을이었다.

『그날밤 尹후보가 계속 리드하자 현역이었던 나는軍에 돌아갈 각오를했죠. 다른 측근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겁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만큼 긴박했던 것인가를 알수있다.

그러나 尹후보에게 줄곧 리드를 당하고 있을때 측근과 수행원들은 누구나 生死갈림길의 절박감에 싸여있었다. 근2년간의 혁명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느냐의 고비였다. 목이타고 입이 마른채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던 일부 성급한 수행원들은 『야당이 집권하면 혁명주체들을 보복할터이니 차라리 모두가 自決하자』고 외치기까지 했었다.

같은날 밤 서울역앞 舊세브란스병원 예비군회관의 共和黨舍. 기획실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나와 진두지휘하던 尹致暎당의장 張炯淳사무총장 金成鎭중앙위의장 金龍泰 金東煥 申允昌씨등 共和黨간부들의 표정들도 마찬가지로 굳어있었다. 이들 간부들은 16일새벽 朴후보가 逆轉리드를 잡은뒤에야 얼굴에 화색을 띠면서 『하마터면 큰일날뻔 했다』고 한마디씩했다. 당시의 K某 共和黨간부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轉役이틀후 本社특별기고에서 "政權담당은 소태맛이지만 피할수없는잔"

『선거유세중 유권자들의 반응을 분석한결과 朴후보가 틀림없이 승리하리라고 믿었지요. 그러나 막상 개표가 진행되면서 尹후보가 계속리드하자 상황실분위기는 심각했어요.

"黨舍 불사르자"

당시 혁명주체들이 거의가 30代아닙니까. 이들은 곧 패배는 보복과 죽음으로 여기는듯 하더군요. 그래서 몇몇 熱血派들은 「우리는 망했다」「모두가 끝났다」「차라리 당사를 불지르자」고 길길이 뛰는것을 겨우 뜯어말렸지요. 훗날 미국무성초청으로 訪美했을때 미국관리들이 그순간이 한국민주주의의 十字路였다고 하더군요. 그때 충격은 대단했읍니다』

尹致暎당시黨의장의 회고도 이와 비슷하다.

『그날밤을 꼬박 새웠어요. 黨은 당초 朴후보가 65%이상 득표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막상 리드를 당하고 보니 별별생각이 다 나더군요』

10·15 대통령선거는 5·16혁명과업을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의 갈림길이었고, 또 史上 가장 치열한 接戰이었기 때문에 선거직후에는 각종 루머의 꼬리를 물게했다.

그중의 하나는 朴후보가 패배할경우 새로운 사태가 일어날뻔 했다는 소문이었다.

이루머는 마치 혁명주체의 朴후보가 「새로운 사태」를 준비나 한것처럼 나돌았다. 여기에 대해 당시의 朴후보 측근이나 共和黨간부들은 『터무니 없는 惡性루머였다』고 극구부인하고 있다.

선거결과 朴후보는 4백70만2천6백40표를얻어 15만6천26표로 尹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다.

2개월뒤인 12월17일 朴후보는 제5代 대통령에 취임, 2년7개월의 軍政을 종식시키고 제3공화국의 문을 열었다. 15만6천표의 표차는 그후 『나는 정신적인 대통령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낳게한 근소한 票差였다.

最高會議 막내려

제3공화국이 첫 걸음을 내디딘 12월17일, 그날은 제3공화국의 장래를 상징하듯 한 겨울인데도 보슬비가 내렸다. 제6代국회가 막개원한뒤인 이날 하오2시 중앙청광장. 陸여사와 함께 3천여명의 환호를 받으며 식장에 도착한 朴 대통령은 근엄한 목소리로 약15분간 취임사를 읽어 내려갔다.

○…정치적 自主와 경제적 自立, 사회적 융화안정을 목표로 大革新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개개인의 정신적 혁명을 전개해야 하겠읍니다…○

취임식을 끝낸 朴 대통령과 陸여사는 孝忠洞의 최고회의의장공관에서 청와대로 이사했다. 이로부터 朴대통령은 79년 10월 26일까지 만15년 10개월동안 청와대의 주인이 된다.

이에 앞서 2년7개월의 軍政기간동안 3權을 휘둘렀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문을 닫은것은 12월16일. 하오2시 최고회의광장 (현기회원자리)에서열린 解體式에는 「나는새도 떨어뜨린다」는 기라성 같은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 「최고회의시대」 9백45일간의 마지막을 지켰다.

『오늘로써 파란과 격동의 5월혁명은 일단 매듭을 짓게 됐읍니다… 그러나 5월 救國혁명의 그역사적사명이 완결된것은아닙니다…』

朴의장의 치사로 꼭 28분간에 걸친 해체식이 끝나자 청사 8층 국기게양대에 걸렸던 최고회의기는 서서히 내려졌다. 軍政이 막을 내리고 民政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特別取材班】

正史를위한 史料발굴作業의 一環
讀者여러분의 많은 提報바랍니다

한국일보社는 감추어진 歷史를찾아 밝혀내는 야심적인 기획으로, 국민모두의 當代史라고 할수있는 第3共和國의 내막을 여는 「秘錄 現代史의 發掘」을 오늘부터 시리즈로연재합니다.

이 새로운 기획연재물의 소재는 불과 10~20년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萬人의 기억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바로 오늘의 狀況에 直結되고있는 進行形의 역사라는 점에서 자칫 時機尙早의 躁急함, 또는 정보의 一方通行에 의한 均衡喪失의 위약성이 없지않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일보社는 이 연재물을 기획함에 있어서 秘話나 野史에 머무르는 「第3共和國」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안목을요구하는正史로서의 「現代史발굴」을 추구해 나갈것입니다. 신문보도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異見이 있을경우 독자여러분의 기탄없는 叱正과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당시 직접 간접으로 관련있는 각계각층에 독자여러분의 아낌없는 提報와 자료제공및 寄稿등 正史를위한 史料가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編輯者注】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왼쪽부터 안주영(매너)·김진영(미)·허윤정(진)·손주라(선)·고보경(인기)양‖
제6회 캐나다미스코리아 선발대회 80년도를 수놓은 정상미녀들

때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30분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시청뒤)
미녀 출전 신청마감 : 4월10일 하오5시
접 수 처 : 토론토 한국일보사(1025 DUPONT ST. TOR. ONT. M6H 1Z7)
연락전화 : (416) 533—2361~4

진행과정 : 하오 6 : 30~7 : 30 — 칵테일
: 〃 7 : 30~8 : 30 — 디너(만찬)
: 〃 8 : 30~10 : 00 — 미인대회
: 〃 10 : 00~10 : 30 — 연예인 쇼
: 〃 10 : 30~11 : 00 — 심사발표및 시상
: 〃 11 : 00~1 : 00 — 댄스파티

입 장 료 : $30.00

미녀들의 출전 환영!
캐나다 전역의 교포미녀들의 다수 출전을 바랍니다.
입상미녀들은 토론토에서 실시되는복합문화 축제 캐라반 행사에 참가하며,
최고미녀 「진」은 모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선」은 캐라반 미녀선발대회에 출전할 영광이 주어집니다.

주최 : 토론토지구한인회
후원 : 한 국 일 보 사

새벽덮친 火魔…大然閣화재방불
非常벨도 案內人도 깊은잠

시트매달려 脫出…추락
內部는 迷路 毒가스에 우왕좌왕
日호텔火災

【東京9日=本社임시취재반】불이난 뉴저팬호텔에는 비상벨은 물론 화재시에 피난을 도와주는 안내자도없어 더욱 큰 피해를 냈다.

캄캄한 방중에 매캐한 연기와 소음등으로 잠을 깬 투숙객들은 우왕좌왕하다가 8층과 10층에서 그대로 뛰어내려 4명이나 죽었다. 또 대부분의 사망자는 불에 타죽기보다는 유독성가스에의한 질식사였다.『마치지난 71년의 大然閣호텔 화재를방불케하는 사건이었다.』이날 뉴저팬호텔에는 한국마키팅연구원 일행17명과 제1차 란체스터방일 경영연수단17명이 각각 9층과 10층에 집단적으로 투숙한 이번화재에서 한국인의 희생자가 많게한 원인이됐다. 9층9백53호실에 투숙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林重圭씨(40·동아제약과장)는 이날새벽3시30분께 매캐한 냄새에 잠을깨어 같은방에 잠자던鄭德浩씨(34·세명기업대표)를 깨워 문을 열어 보았더니 불기와 함께 연기가 밀어닥쳐 급히 문을 닫고 의자로 유리창을 깨고 커튼과 침대시트로 밧줄을 만들어 창틀에 매달고 탈출했다. 林씨는 시트로 만든 밧줄이 짧아 일단 8층까지 내려와 계단을 통해 정씨와 함께 빠져나왔다.

9·10層·屋上서 "살려달라"絶叫

란체스터방일경영연수단으로 온 李相信씨(53·順愛의원장), 金鍾赫씨(東亞제약상무)등은 10층 1039호실에 함께 투숙했다가 살아난 케이스. 李씨는 연기때문에 잠을 깼을때는 이미 뜨거운 열기와 냄새때문에 숨을쉴수가 없어 물수건으로 코를 막은 뒤 맥주병으로 유리창을깨고 창틀에 올라서 옥상난간에매달려 턱걸이도 옥상으로 간신히 올라가 실신했는데 깨어보니 병원에 옮겨져있었다고했다.

그러나 키가작은 金씨는옥상에 손이닿지않아 기어 올라갈수가없어 10층 방안에서 발을 구르던중 옥상에 올라온 소방대원이 밧줄을 내려주어 옥상으로 대피할수있었다.

두사람은 외상은 없으나유독가스로 가벼운 기관지염을 일으켜 아오끼(靑木)병원에서 입원 가료중이다.

이날 9층 942호실에함께 투숙했던 崔基玹씨와 崔正玹씨(란체스터경영연구소장)형제는 미처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마키팅 연수단일행은 지난3일 東京에도착, 7일까지 東京에서의 연수를 마치고 8일 오오사까를 거쳐10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한국인 부상자들은 澁愛병원, 川瀨외과, 靑木병원등에 분산수용 가료중이다. 사망자의 유해는 東京타워밑 도쿠가와·이에야쓰(德川家康)를 받들어 제사지내고있는 조조지(增上寺)회관에 안치되어 검시가 끝나는대로 시체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東京8日AP=聯】8일새벽 東京한복판을 수라장으로 몰아넣은 뉴저팬호텔화재는 이호텔9층의 한외국인 객실에서 발화된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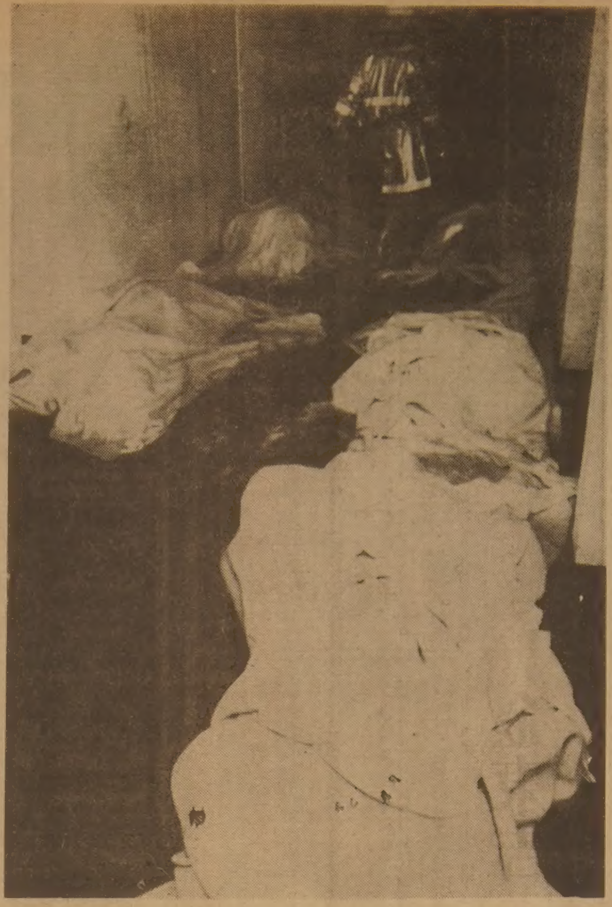
이 호텔의 프론트데스크직원 후꾸나까·스스무씨에 따르면 그가 이날 새벽 근무를 마치고 휴식을취하기위해 9층에 올라갔을때 메이커라는 외국인이 묵고있는 9백38호실에서 불길이 솟아나와 급히 프론트에 연락했다는것.

한편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투숙객들은 9층과 10층의외국인들이 화마를피해 침대시트를 밧줄삼아 뛰어내리거나 침대커버를 찢어 아래층으로 매달려 탈출하다가 실족하는등 대소동을 빚었다고 몸서리쳤다.

화재발생당시 8층에 머물고있던 西獨의 한스·트리폴러씨는 서너사람이 옷에불이 붙은채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하고 9층의 한투숙객은침대커버를 이어만든 구명띠를 타고 8층으로 내려오던중불길에 구명띠가 끊어지면서추락하고 말았다고 애석했다.

이밖에 호텔내부에서 숨진투숙객들은 옥상에서 1명, 9층에서 9명, 10층에서 2명이 숨진채 발견됐는데 이들을 아래층으로 운반하는과정에서 희생자수를 두번 계산하는바람에 사망자수가 한때 30명이상으로 늘어나기도.

지난60년 개관한 이 호텔에는 화재발생당시 4백19개의 객실에 모두 4백42명의 손님이 투숙하고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



◇참혹한現場 시체수습 형체를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불에탄 사망자들의 유해가 호텔의 한방에 안치돼있다. 소방관들이 시체수습을 하고있는 모습이 보인다.【8일 한국일보 東京支社發=讀賣新聞提供】

초상집된 硏究所
란체스터 회장·所長형제·編輯長참변

【란체스터연구소】서울中區忠武路3街56의 3 정원빌딩301호 란체스터연구소 사무실은 연수단원중 金회장을비롯 崔소장형제 및 金南順양의사망이 확인돼 삽시간에 초상집으로변했다.

이날 상오까지도 직원들은 란체스터로 국제전화를 걸어 사고경위와 단원들의 안부를 확인하느라 바쁜 모습이었으나 하오들어 잇달아 연구소 수뇌들의 사망이확인되자 넋을잃은채 울음을 터뜨렸다. 사망한 金南順양(28·서울麻浦區龍江洞 용강아파트)의 동생 點順양(27·회사원)도 이날 하오 2시께 사고 소식을듣고 사무실로 달려와 계속 울고 있었다.

1차硏修團이 20일께 歸國 예정

【란체스터연수단】일본에서 참변을 당한 한국 란체스터 전략연구소의 제1차 방일경영연수단은 지난 7일 상오10시 출국, 하오3시10분께 뉴저팬호텔에 여장을 풀고 첫날밤을 자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9일동안 일본에머물면서「국제경쟁시대의 생존방법」등 13차례의 세미나와 산토리공장견학등을 마치고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방일연수단은 당초 20명의로 구성됐었으나 鄭光謨씨(53·한국소비자연맹회장)등 3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 17명만 떠났다.

이들중 란체스터전략연구소장 崔正玹씨(46)의 친형인 崔基玹씨(55)는 東京에 집이 있기 때문에 이 호텔에 투숙하지않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란체스터전략연구소는 지난77년 현소장 崔正玹씨가설립, 직원7명을두고 주로 각 기업체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마키팅및 경영전략연수활동을 해왔는데 西獨·日本의 란체스터연구소와 자매결연도 맺어 이들을 초청, 방한연수활동을 주최해왔고 우리나라에서 연수단을 파견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장·소장등 연구소 수뇌진을 한꺼번에 잃고 삽시간에 초상집으로 변한 서울中區忠武路3街소재 란체스터전략연구소사무실. 직원들과 연수단 가족들이 발을구르며 안타까운 모습으로 일본과 국제전화를 걸고있다.

날벼락 悲報에 家族들 넋잃어

安否수소문 外出

【金泰東씨집】보사및 체신부장관을지낸 金泰東씨의 서울江南區狎鷗亭洞 現代아파트 11동804호자택에는 이웃주민 한사람이 집을 지키고있을뿐 가족들은 金씨의 안부를 수소문하기위해 모두 밖으로 나가 아무도 없었다.

두아들껴안고 痛哭

【趙淳씨집】서울東大門區 長安1洞167의13 趙淳씨집에는 8일 참변소식을 듣고 新吉洞본가에서 달려온 아버지 趙규헌씨(65)와 부인金형섭씨(40), 아들 양재(10·군자국교2년), 현재(8)군 형제등이 안방에서 넋을잃은채 울음을 터뜨렸다. 부인金씨는 趙씨가 지난3일출국, 10일께 귀국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영문도 모른채 따라울고있는 두아들을 껴안고 몸둘바를 몰랐다.

동생과 자취生活

【金南順양】고향이 경북尙州인 金南順양은 서울보건전문大 식품영양학과에 다니면서 7년전 이 연구소에 취직, 편집장을 맡아왔는데 동생 点順양과 함께 자취생활을 해왔다.

동료들에 의하면 金양은평소 성실한 성격으로 재치가 뛰어나 「관대전략」등 여성으로서는 만들기가 벅찬 잡지제작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사교성도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혹시하다 울음보

【崔正玹씨가족】이날 낮12시부터 사무실에나와 남편의생사를 몰라 애태우던 崔正玹씨부인 李恩雨씨(42)는 다른직원이 일본에있는 李씨의 친척과 국제전화를통해 하오5시께 남편과 시아주버니 崔基玹씨(55)가 변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자 참고있던 울음을 터뜨렸다.

李씨는『남편이 몸이 불편해 약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변을 당한것 같다』며『평소에 새벽3시까지도 잠을 자지않았던 사람인데…』말을 잇지 못했다.

李씨는 함께 온 친척 친지들의 부축을 받으며 떠밀리다시피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확인결과 崔씨형제는 방안에서 질식사한것으로 밝혀졌으며 편집장 金南順양(28)은 뛰어내리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태우다 결국悲報

【李柱興씨】李柱興씨(46·금성사영업담당상무이사)는 계속 생사가 확인되지않다가 8일하오5시 사망한것으로 밝혀졌는데 李씨의부인 文久子씨(40·서울銅雀區大方洞 391의566)와 아들 宮定군(13)등 가족들은 행여나하고 소식을 기다리다 비보를 전해듣고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숨진李씨는 지난62년 럭키화학에 입사, 금성사 이사를 거쳐 현재 상무로일하고있는데 부인 文씨와의 사이에 1남3녀를두고있다.

혹시나 期待속 초조

【행방불명자가족들】安茂正씨집에는부인 李春花씨(35)가 남편의 생사를 알수없어 애태우고있었는데 불이나기전인 8일새벽0시30분께 남편이 집으로 국제전화를 걸어『무사하다』고 말하고 집안 안부까지 물었다면서 말을 잇지못했다.

李씨는 또『외아들인 安씨를 낳자마자 남편을 여인 시어머니 韓貞洙씨(63)에게는 화재소식조차 알리지 못했다』며 흐느꼈다.

徐東金씨의 서울恩平區 驛村洞68의52집에는 부인 姜鄕玉씨(50)와 노모(94), 1남3녀등 가족들이 모여 정확한 소식을몰라 애를태웠고 서울江南區 新沙洞 설악아파트상가5층에 있는 롯데칠성음료본사에서도 간부들이 모두모여 일본롯데에 나가있는 주재원을통해 徐씨의 안부를 알아보느라 분주했다.

徐씨는 서울工大섬유공학과출신으로제일모직공장장을 거쳐 지난73년부터 롯데그룹의 중역으로 일해왔으며 현재는 롯데칠성음료생산담당 상무로 재직중이다.

在日동포가 한때 社長지내
消防시설未備…개수령받아

【뉴저팬호텔】【東京=8日본사임시취재반】전후 東京에서 발생한 최대의 호텔참사로 기록된 화재사건현장 호텔 뉴·저팬(사장 橫井英樹)은 東京도심지인 아까사까에 위치하고 있고 재일동포인 朴容九씨가 오랫동안 사장을 지내 한국인투숙객이 어느 호텔보다 많다.

지난60년 완공된 뉴·저팬호텔은 스프링클러등 소방시설이 미비하여 수차례 소방당국에 의해 개수명령을 받았으나 적자운영문제로 호텔의 반밖에 개수가 이뤄지지않았다고 요꼬이사장은 밝혔다. 또한 여러차례 증축공사로 호텔내부가 마치 미로처럼돼있어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특히 화재발생당시 호텔내부의 대피안내방송도 없었던것은 미비한시설과 무책임한 경영등과함께 이번 참사를 더욱 부채질했다.

冷凍船에 금괴·寶石등 비밀倉庫
日人낀 10억臺 密輸團적발
전국密賣 5개派 16명拘束·22명手配

【釜山=聯】釜山지검 특수부는 8일 일본인이 낀 10억대 금괴·보석·녹용밀수조직 5개파를 적발, 김현주씨(31·선원·釜山西區南富民洞3街522)과 일본인 우찌와 사까에씨(53), 교포 박상인씨(45)등 1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및 관세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한섭씨(40)와 일본인 와따나베씨(35)등 24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금괴 1백g짜리 8개, 1백g짜리백금괴 18개, 녹용 4kg, 밍크목도리 79개, 손목시계3백개등 싯가 2억원상당의밀수품도 압수했다.

검찰에의하면 金씨는 화성기업사 소속 대일냉동운반선 제73고려호 조리장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9월중순께부터 지난 4일까지 14차례에걸쳐 일본에서 금과 백금등 11·7kg과 다이어먼드 34개등 10억원대의 물품을 배비밀창고에 숨겨 들어와 전국의 밀매조직망을통해 팔아온 혐의를 받고있다.

홍콩B型등 유행성毒感
한국 上陸할지도
保社部, 예방당부

보사부는 8일 홍콩B형, 소련A형등 인플루엔저(유행성독감)가 최근 日本전국에 크게 번지고있어 우리나라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개학을 맞은 초·중·고교등 학교와 기숙사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해 위생관리, 보건교육에 특별히 유의해줄것을 당부했다.

또 보사부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아데노바이러스원인균으로 추정되는 유행성결막염이 서태평양의 피지및 사모아제도·하와이지역등에서 크게 유행하고있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국립검역소에 이지역 여행자들에 대한 예방 홍보·관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현지교민·여행자에대한예방계몽등의협조를외무부에요청했다.

2·8獨立선언
東京서 紀念碑제막

【東京8日=聯】3·1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2·8독립선언운동기념비가 이운동의 63주년을 맞는 8일 발상지인 도오꾜(東京)의 한국YMCA회관에서 제막되었다.

이날 제막식에서 崔慶祿대사와 張聰明民團단장을비롯한 참석자들은 민족의 자주독립을 성취하려했던 2·8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자고 다짐했다.

"호텔·旅館 수사말라 先 증거·後 連行토록" 治安本部 지시

치안본부는 8일 각종사건을 수사할때 증거를 먼저 수집한다음 용의자를 연행수사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중요 강력사건의 용의자라 하더라도 규정된 시일안에 범죄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못할경우일단귀가시킨후계속수사하도록지시했다.

경찰은 또 보안유지등을이유로 용의자를 호텔이나 여관등지에 장기간 억류해온 폐습도 없애고 관할경찰서내에서 간부경찰관의감독아래 자유스럽고 공정한수사를 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밖에 주요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초동수사때부터 현장수사지휘감독을 강화하기위해 치안본부에 수사, 감식, 법의학전문관으로 구성된 수사지도관제를 설치운영키로했다.

경찰의 이같은 수사업무개선강화방안은 최근 서울龍山區元曉路 尹景花노파 피살사건, 朴尙恩양 피살사건등의 경찰수사가 번복되거나 고문수사등으로 물의를빚자 이같은 현상은 범인을 빨리 검거하겠다는 과잉의욕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분석, 일선경찰의 수사업무를 개선하고 실추된 경찰수사의 신뢰를회복하기위한것이다.

文化短信

約婚·상속·離婚등 여성法律 무료講座

서울YWCA는 9일부터 3월2일까지 여성들을 위한 법률무료강좌를 실시한다. 강좌내용은 약혼·남녀관계·사실혼·상속·이혼등이며 강사는 李允榮박사와 車明姬씨.

經濟短信

▲第一火災사장에 趙忠勳씨=韓國火藥그룹 계열기업인 第一火災保險대표이사 사장에 재무부차관을지낸 趙忠勳씨(사진), 부사장에 崔容般한국화약부사장이 선임됐고 韓國火藥부사장엔 崔[illegible]전國防部국장을 기용.

▲外換銀, 홍콩서 預金證書발행=외환은행은 8일 홍콩에서 2천만달러 규모의 變動金利附 예금증서를 3년만기에 금리는 리보 더하기 0·19%수준으로 유리한 조건에 발행하는데 성공.

▲國際商事, 寶高産業흡수합병=국제상사는 8일 전기·전자메이커인 寶高産業을 흡수합병키로하고 이를 증권거래소에 公示했다. 국제상사는 寶高합병으로 자본금이 1백12억2천만원으로 늘어났다.

▲東海生命 사무실 移轉=東海生命은 서울西大門區 新門路 58의7번지 新聞路빌딩으로 본사를 移轉.

▲롤즈로이스技術심포지엄=英롤즈로이스社는 대한항공협력으로 10일 롯데호텔서「항공기엔진등에 관한 기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金星社, 中南美에 엘리베이터 수출=金星社는 콜럼비아등 中南美에 30대의 엘리베이터 수출계약을맺었다. 金星社는 지난 79년 中東·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에 1백52대 5백만달러어치를 수출했었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김명종 한약방
웅·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745-2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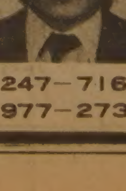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Bloor / Keele / Bathurst / Bayview / CHINA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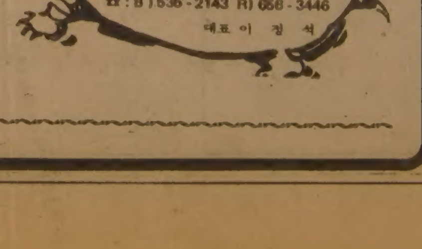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피로연
— 예 약 환 영 —
영업시간: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목, 금, 토, 일: 권순근 악단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알렌

Grant Brown
세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533-7966 김 영 철

5百m 39秒63 千m 1分21秒60
蘇 남녀1위 獨占
世界스프린트 氷上

【알크마르(네덜란드) 7日 AP=聯】한국의 李永河(대우)는 7일 네덜란드의 알크마르에서 폐막된 제13회 세계스프린트 스피드 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 총 1백61·61점으로 남자부 종합 23위를 차지하는 저조한 성적을 올렸다.

李는 6일첫경기 남자 5백m와 1천m에서 40초11과 1분22초88을 기록, 각각 27위와 29위에 머무른데이어 대회최종일 5백m에서는 39초63으로 26위, 1천m에서는 1분21초6으로 27위에 그쳐 개인종합23위를마크한것이다.

李는 이번대회에서 자신의 종전기록인 38초86(5백m·82년1월)과 1분18초78(1천m·79년12월)에도 훨씬 못미치는 부진을 보였다.

한편 소련의 세르게이·흐리브니코프는 1백54·25점으로 남자부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자부에서도 소련의 나탈리아·페트루세바가 1백67·985점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鄭巡鉉 王座 복귀
OPBF J페더級 판정승

鄭巡鉉(28)은 7일밤 문화체육관서 벌어진 프로복싱 OPBF(동양태평양권투연맹)주니어페더급 타이틀전서 챔피언 윌리·루카스(필리핀)에 도전, 고전끝에 판정승을거두고 루카스에 잃었던 타이틀을 되찾았다.

鄭은 2회에서 루카스의 원투 펀치를 턱에맞고 녹다운, 열세에 몰렸으나 중반이후 머리를내밀고 거칠게 공격, 가까스로 게임을 뒤집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1>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⑱

『그래서요?』

수지는 짐짓 냉담하게 물었다.

『내다버리길 단념할수 밖에. 데리고 있기로 마음먹고 편의상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지. 내 성을 따게 한 애들은 아주 어려서 버려진 아이들이고, 말을 할 수있는 아이만 돼도 어떤 허든 기억을 되살려 제 성명만은 놓치지않도록 하자는게 내 신조였지. 훗날 혈육이나 연고자를 찾을수있는 유일한 단서가 성명인데 그때 찾아서 꼭 쥐어주지않으면 영영 잊어버리고 마는게 아이들의 기억력이니까. 그런데 그을보를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노력조차 안했었거던. 박약아 취급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이가 그애의 본명이라는거죠?』

『글쎄 내말을 끝까지 들어보라니까. 지금생각나지는 않지만 아뭏든 무슨이름인가 지어서 그애를 불렀더니 그동안 조금 순해졌던 그애 성품이 다시 사나와지면서 울고 물어뜯고 난동을 부리는데 굉장하더군. 문득 짚히는게 있어서 이름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렷한 발음으로 오목이라고 대답하지 뭐야. 신기하기도하고 어이가 없기도하고, 오목이란 성명은 그애한테 들은 최초의 말인동시에 그애를 여는 열쇠였어. 고아원 애들이란게 다 애정에굶주린 애들이라 누가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게 가정집 아이들보다 좀 더 한 건 사실이지만 목이는 그게 심한편이었어. 이름을 밝히고나서부터 누가 쉴새없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길 바랐으니까. 자주 불러줄수록 그애는 부드럽고착한애가돼갔지. 그애의제이름에대한집착이어느만큼유별났었나하면성을 (빼)고 이름만불러도 서운해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꼬박 성까지 붙여서 오목이라고 불러줬었지. 그애가 제 성명 석자를 들으며 행복해하다못해황홀해하는걸 볼적마다 그애가 얼마나 좋은 가정에서 그이름으로 사랑받고 자랐는가를 알수있을 것같아 가슴이 찌했지만 그이상을 알아낼수는 없었어. 그애가 기억하고있는건 성명 석자가 전부였지만 그 성명 석자가 끝내 그애가 잃어버린 좋은가정을 되찾을 단서가 되진 못하고말았어. 그 애석하게도. 그렇지만 그애의 착한마음을 얻을수있었으니까 그게 어디야』

수지는 유원장의 장황한말에 문득 염증을 느꼈다. 염증은 차멀미처럼 생생하게 고통스러웠다.

때마침 부릉부릉 시동을 거는 버스에 냉큼 올라탔다. 차창밖에 멍청하게 서있는 유원장에게 손을 흔들었다. 유원장이 뭐라고 그러는 것같았으나 들리지않았다. 버스는 부릉대기만하고 떠나지않았다. 유원장이 먼저 떠났다. 유원장이 흔들흔들 어둠속에 흡수되자 수지는 앞자리의 등받이에 이마를 박으며 양손을 머리카락 깊숙이 집어넣었다.

다섯살 적의 기억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것일까? 수지는 사람의 무수한 기억, 삶의 흔적을 사장(死藏)하고있는 신비한 망각의 서랍을 생각했다.

어느날 문득 목이가 그 서랍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찾아냈듯이 그서랍이 두고두고 보고(寶庫)가 되는 일은 없을까? 변만간 그 서랍이 그 내용물을 무더기로 토하면서 백일하에 쏟아져내리는 일은 없을 것인가? 수지는 남의 망각의 서랍속에 챙겨져있을 자기생의 한 시기가 싫고 무서웠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없애버리고 싶었다.

流星의 賦 <30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虛實의 時間 ①

수길이 동북지방(東北地方)을 평정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어 11월7일 사신들이 수길을 만나게 되었다. 장소는 취락제. 취락제의 굉장한 규모와 그 화미(華美)는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이 회견에 앞서 김성일(金誠一)과 일본측(日本側)사이에 맹렬한 언쟁이 있었다. 일본측은 사신들에게 수길을 향해 청하배(廳下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일은 그것을 불가하다고 거절한 것이다.

일본은 수길이 천하지권(天下之權)을 장악한 실권자(實權者)이니만큼 외국의 사신들은 마땅히 국왕(國王)에 준하는 예의를 다해야 한 것이라고 우겼는데 김성일은

『관백(關白)이 비록 천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나 그 신분은 일본 국왕에 대한 신하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의 임금을 대신한 사신들이다. 어찌 남의 나라의 신하 앞에 청하배를 할수 있겠는가』하고 맞섰다.

우리들 사신 가운데도 옛날 중국의 전례(典例)를 인용하기도 하여 수길을 국왕에 준하는 사람, 즉 사실상의 왕으로서 대우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김성일은 막무가내하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했다.

결국 수길과의 회견절차는 김성일이 바라는대로 되어 11월7일의 회견은 실현을 보게 되었다.

사신일행은 가각(笳角)의 악(樂)을 선두로 하여 교자(轎子)를 타고 취락제 안으로 들어가 곧바로 당상(堂上)으로 인도되었다. 그리고 수길과 대등의 예를 교환했다.

이어 국서(國書)와 방물목록(方物目錄)을 수교하는 의식이있었다. 국서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조선국왕은 서(書)를 일본국왕에게 바치니라. 봄철의 기후가 좋고 만물의 동정이 아름다울 무렵 멀리 대왕(大王)께선 60여주를 통일했다고 들었도다. 그래서 빨리 신(信)을 통하여 친목으로 인호(隣好)를 두텁게 하려했으나 길이 하도멀어 생각만하고 그 뜻을이루지못했다가 이제 귀국의 사신과함께 황윤길·김성일·허성등 삼사(三使)를 보내어 하사(賀辭)케 하는바 이로부터 인호가 더욱 두터워지길 바라는 바이오. 이에 많지않은 토의(土宜=토산물)를 보내니 소류(笑留)하길 바라오』

이른바 토산물 가운데 말(馬)·면포(綿布)·마포(麻布)를 비롯하여 표피(豹皮)·호피(虎皮)·백미(白米) 2백석, 청밀십호(淸蜜十壺)등의 목록이 보인다.

사모(紗帽)를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원면(猿面)의 수길은 사신들을 오종찬(五種饌)으로접대하고 조선국왕에겐 안마(鞍馬)·갑주(甲胄)·기완(器玩)등을 선사하고 삼사신에게 은폐(銀幣)를 선사했다.

그런데 수길이 도중에서 일어나 사라지더니 조금 있다 평복(平服)으로 갈아입곤 어린아이를 안고 나와 방충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다. 그 아이가 전년에 출생한 쓰루마쓰(鶴松)였다는 것을 사신들이 안것은 조금 뒤의 일이다.

수길은 어린애를 안고 난간에 기댄채 조선악공(樂工)들의 주악을 들었다. 그러는동안 어린애가 오줌을 누었던 모양으로 수길은 웃으며 아이를 시자(侍者)에게 건넸다. 아뭏든 방약무인(傍若無人)의 행동이었다.

金東吉 金메달
印尼아마복싱 한국팀6位

【자카르타6日AP=聯】韓國의 金東吉은 6일밤 자카르타에서 폐막된 제5회 프레지던트컵쟁탈 국제아마복싱대회 라이트웰터급 결승전에서 이탈리아의 부루노·루치아노선수를 판정으로 누르고 金메달을 획득했다.

韓國선수중 유일하게 결승전에 진출한 金東吉은 이날 부루노와의접전끝에근소한점수차이로판정승을거두었다.

이번 대회에 단3명의 선수만을 참가시킨 韓國팀은 이로써 지난4일 플라이급과라이트급에서 許永模선수와 金基澤선수가 따낸 2개의 銅메달을 합쳐 참가12개국가운데 종합6위를 차지했다.

지난 4회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바있는 蘇聯은 이날 웰터급을 비롯한 5체급에서 금메달을 따내 2연패를 기록했으며 이집트가 金메달 2개로 2위에, 그리고 金메달 1개와 銀메달 2개, 銅메달 9개를 획득한인도네시아가 3위를각각차지했다.

핸드볼代表團 개선

제2의 쿠웨이트 국제핸드볼대회에서 강호 中共과 스웨덴등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韓國남자핸드볼선수단이 7일하오 金浦공항에 개선했다.

尹世榮단장(서울시협회장) 인솔로 귀국한 선수단은 이날 공항대합실에서 金鍾烈대한체육회부회장·金宗河핸드볼협회장등 체육계인사들이 베푼 환영식에 참석했다.

최우수選手 시상 體育會서 15일에

체육회는 81년도 최우수선수및 단체에대한 시상식을오는15일 상오11시 체육회10층강당에서 거행한다.

泰, 北傀요청 拒否
大使館개설·民航協定체결

【방콕6日=聯】타이정부는 최근 방콕주재대사관을 개설하고 민간항공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자는 북괴측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6일 보도됐다.

타이의 권위있는 영자지 방콕·포스트는 이날 톱·기사에서 권위있는 소식통을 인용, 그같은 요청이 8일 공식방문차 방콕에 도착하는 북괴정무원총리 李鍾玉의 방문준비과정에서 북괴측에 의해 제기됐다고 밝혔다.

北傀 계속緘口
20개示範사업提議

【서울=聯】全斗煥대통령이 국내외에 천명한 民族和合民主統一방안을 기본바탕으로 南北韓이 당장 실천에 옮길수있는 20개시범사업이 제시된지 8일이 경과한 8일현재까지 세계각국의 지도자들과 언론이 이를 韓半島평화통일을 앞당길수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로보고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보내고있음에도 불구, 北傀의 공식선전기관들은 이에대해 비방과 위장평화선전만을 늘어놓고있다.

五輪지원 조기立法

국회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88년 서울올림픽개최를 지원하기위해 올림픽관련산업개발촉진법의 제정, 각종 稅法개정등 10여개 관계법의 立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陸軍3士校우승
晉釜역전마라톤

【釜山=聯】陸軍3사관학교와 全南體高가 3·1절경축 제14회 晉釜역전마라톤대회 일반부와 학생부 패권을 각각 차지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383·2801

나의 이력서

〈題字 元一漢〉

元一漢 ㊼

延禧大로 復歸
47年8월…다시 英語敎授로

해방후 한국에 주둔한 미군24군단은 군단본부와 군정청본부로 나누어져 있었다. 24군단장은 하지장군이었고 군정청사령관은 러치장군이었다. 아버지는 당초 군정장관 아놀드장군의 고문과 하지장군의 통역및 고문을 맡았다가 나중에는 러치장군의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아버지가 미국관계의 직책을 모두 버리고 延禧대학교 명예총장으로 돌아온것은 1947년 10월이다. 나는 그보다 두달앞서 영어교수로 복귀했었다.

아버지는 새출발하다시피하는 延禧大지원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동분서주했다. 아버지는 延禧대학교 기독교연합재단법인 대표로서 계속활동했다. 나와 어머니는 해방전 延禧교수였다가 선교부일로 다시 내한한 베이커, 빌링스와함께 과도이사회에 참여했다.

후원회와 동문회의 협조아래 학교경영난을 극복하려는 이사회의 노력이 시원치 않자 아버지와 白樂濬총장은 미국선교부에 학교부흥을 위한 원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미국선교부는 한국이 독립한만큼 日帝때와 똑같은 방법이 타당한가도 문제인데다 한국에서의사업계획안도 마련되지 않아 관망하던차에 이같은 요청을 받게된 것이다.

내가 延禧대학교로 복귀할 무렵 미국선교부의 협동이사회는 한국에 교육시찰단을 보내게 되었다. 이들 시찰단이 내린결론은 延禧·梨花·세브란스등 3개 대학교는 합동발전되어야한다는것이었다. 특히 延禧의 한국인교직자들이 기독교정신을 유지할것을 희망하고 그정신속에서 사립대학의 학문적인 교육성과를 다짐하고 있는점에 관심을 보였다.

在美협동이사회가 파견한 교육시찰단이 조사를끝내고 귀국한 직후 白樂濬총장이 미북장로교 선교부초청으로渡美했다. 이때 작성해간 延禧대학교 재건안이 받아들여져 1949년부터 점차 보조가 재개되기시작한 것이다.

◇동해안을 찾았을때 찍은 가족사진。맨앞에 당시 5살인 漢光이 서 있다。

美선교부서 學校재건안을 受諾

이처럼 학교의 토대는 잡혀갔지만 좌익계의 선동으로 맹휴와 시험거부가 자주 일어나는 다난한 시기였다.

교수들은 어느때는 학생들을설득하기도하고 또 어떤땐 시험을 거부할경우 교수가총사퇴하고 교문을닫겠다는등의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했다.

아버지와 내가 군정청에서 延禧캠퍼스로 돌아왔을때 목사인 동생요한은 사회부구제담당부일을 그만두고 淸州에 가서 선교사로 활약하고 있었다.

1948년 여름께로 기억된다. 아버지의 지프를타고 동생을만나러가는도중 비가 많이 쏟아지는바람에 교량이 끊겨 큰냇가를 가로질러 건널수밖에 없었다.

그때 황소가 달구지를 끌고 제방을 올라오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아버지는 지프의힘으로 소달구지를 끌어올려 주었다. 『자동차가 길에처박혀 여러번 소의 신세를 졌는데 이번에야 말로 보답을 했노라』고 아버지는 항상 이일을 즐거워 했다.

그해겨울 아버지가 오랜만에 동해안에 가보자고해 江陵을 거쳐 浦項쪽으로 내려갔다. 길은 나빴으나 경치가 매우좋았다. 莊玄에서 하루쉬어가려고 여관에 여장을 풀었다.

그때 漢光이 다섯살이었는데 동네아이들과 사귀기위해 밖에 나갔다가 급히 돌아와 『아버지 여기도 한국입니까?』하고 물었다. 처음 들어보는 경상도 사투리를 알아듣지못해 여기가 다른나라가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다.

성 명 서

전두환 대통령은 82년 1월22일 국정연설에서 남북한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통일헌법기초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로 통일헌법, 확정공포, 총선거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완성하자는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던바 동제안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결 의 문

1. 우리는 전대통령의 동 제의가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건설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로서 이를 전폭 지지하며, 북한당국이 하루속히 동 제의에 응하여 민족통일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통일국가가 완성될때까지 남북한간에 민족화합을 실현에 나갈것과 이에 필요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상호비방과 긴장하에 대치형태를 중지할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조속한 기일내에 남·북수뇌가 서로만나 구체적인 통일논의에 임할것을 촉구한다.

통일원장관이 얘기한 20가지

1) 남북간에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치로서 서울, 평양간 도로를 연결 개통한다.

2) 남북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우선 그들간에 우편 교환 및 상봉을 실현한다.

3) 설악산 이북과 금강산 이남지역을 관광 휴양지로 설정하여 자유 관광 공동지역으로 개방한다.

4)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판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역을 자유로이 방문하도록 한다.

5) 남북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항과 진남포항을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6) 남북간에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략방송장치와 방송청취 통제장치를 제거하여 쌍방 규정방송을 자유로이 청취하도록 한다.

7) 86년 아시안 경기대회및 88년도 올림픽 대회에 북한측 선수단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참가하도록 한다.

8) 남북을 방문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판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9) 남북 어부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유로운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한다.

10) 남북간의 관계 개선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정치인, 경제인, 청년, 학생, 노동자, 문예인, 체육인등 각계 인사간의 상호 친선방문을 실시한다.

11) 남북 회의실상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쌍방 기자들의 상대적 지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12) 민족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민족사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13) 남북간에 각종목별 체육 친선교환 경기를 개최하며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

14) 쌍방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용 생산품의 교역을 실시한다.

15) 민족경제의 번영을 위하여 남북간 자연자원의 공동개발및 공동인용을 실현한다.

16) 남북간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일 제조업체간의 기술자교류및 생산품 전시회를 교환 개최한다.

17) 비무장 지대내에 공동경기장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남북간의 친선경기에 이용한다.

18) 비무장 지대내에 동식물의 자연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공동학업조사를 실시한다.

19)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무장 지대내의 군사시설을 완전히 철거한다.

20) 남북간에 군비통제조치를 협의하며 쌍방 군사 책임자간에 직통 전화를 설치 운용한다.

1982년 2월 1일

대한민국 국토 통일원장관

한인회 · 노년회 · 실업인협회 · 코리아타운 번영회 · 무역인협회 · 대한체육회

金鍾泌·李厚洛·金振晩씨 장학재단 解散

국가奬學財團으로 統合

總89億원흡수 百億원규모

全大學生1% 奬學金 혜택

李씨所有 7개私立中高校는 3월까지 公立化

◇3개법인의 재산및 장학금 지급상황

재단별	재산내역	평가액	81장학생수	장학금지급액
한서장학재단 (김종필)	서산농장(목장) 제주 감귤 농장	64·2억	190名	101,027천원 (재산의1·5%)
서울장학재단 (김진만)	임야·주식 수익증권	9·8억	67名	6,950천원 (0·7%)
울산장학회 (이후락)	임야·농지 주식등	15·5억	142名	9,600천원 (0·6%)
계		89·5억	399名	117,577천원 (1·3%)

문교부는 6일 지난80년 5·17조치이후 권력형부정축재에 관련, 사회에 환원된 재산중 金鍾泌씨가 설립한 漢瑞장학재단(현 이사장 崔奎南)、李厚洛씨가 설립한 蔚山장학회(이사장 車鑿李)、金振晩씨 설립의 서울장학재단(이사장 具本錫)등 3개재단을 해산하고, 그재산89억5천만원을 국가설립의 韓國장학재단(이사장 趙炡鉉전문교차관·자본금10억원)에 통합키로 했다.

문교부는 또 李厚洛씨가 설립한 蔚山육영회산하 7개사립중·고교도 오는 3월말까지 공립화하기로 했다.

문교부가 해산, 韓國장학재단에 통합키로한 3개법인의 재산은▲漢瑞장학재단의 64억2천만원(瑞山농장40억원·濟州감귤농장24억2천만원)▲蔚山장학회의15억5천만원(임야·농지·주식)▲서울장학재단의 9억8천만원(임야·주식·수익증권)등 도합 89억5천만원상당이다.

문교부는 이들 법인의 소유의 재산을 일반에 매각할 예정인데 이중 漢瑞장학재단의 瑞山농장만은 農水産部가 83년도에 40억원에 매입, 種畜場등으로 국가가 이용키로했다.

또 오는3월에 공립학교로 바뀌는 蔚山육영회산하 사립학교는 鶴城중、鶴城여중、鶴城고、又石고、彥陽여중、彥陽여상、蔚山여상등 7개교다.

한편 韓國장학재단은 이번 조치로 장학기금이 1백억원으로 늘어나며 여기서 나오는 연간수익 약 20억원으로 전체대학생의 약 1%에 대해 장학금수혜혜택을 줄수있게됐다.

還收재산 8百38億

解說 문교부가 3개재단을 굳이 해산시키고 그재산을국가재단에흡수하게 된데는그나름의명분이있다.

大都市영세민 地方移住 장려

7월부터 費用지급·就業알선

두子女이하 出産때는 장려금 10萬원

정부는 6일 오는7월부터 실시할 영세민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英、對蘇·波제재 가담

신규借款 중단등

"한국統一제의 遠大한 계획"

이코노미스트誌

◇全대통령이 濟州국제공항 새滑走路 준공식에서 관계자들과 開通테이프를 끊고있다.

全대통령、濟州道廳순시 强調

"法·秩序어기면 地位불문 制裁"

올해는 腐敗·無事安逸 척결의 해

【濟州=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6일하오『우리나라는 과거에 특권층과 권력층이 적지않았다』고 지적하고『대통령에서부터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法앞에는모두 평등해야 하며 누구든 法과 秩序를 지키지 않을때에는 법적인 制裁를 받을 각오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濟州道廳을 순시, 崔在榮지사와 梁致鍾교육감으로부터 8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이같이 밝히고『공직자와 지도층인사들이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데 솔선수범하여 행동으로 이를 국민에게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濟州공항 새滑走路준공

점보機 離着陸·날씨따른 缺航率줄어

【濟州=林承茂기자】제주국제공항의 새활주로가 6일상오 준공됐다.

지난79년1월20일착공, 2백64억원을 들여 3년만에 완공된 제주국제공항의 새활주로는 길이 3천m、폭45m 규모로 유도로(1만9천6백㎡)계류장(4만8천㎡)과 최신식계기착륙장치(ILS)를 갖추었다.

全대통령 試走

【濟州市=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6일낮 12시 濟州국제공항 새滑走路준공식에 참석, 관계자들과 開通테이프를 끊고 試走했다.

"韓美友好 더욱 공고해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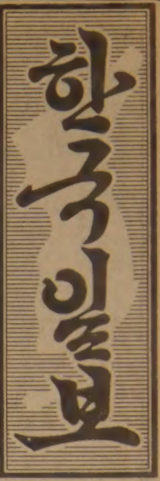
全大統領、레이건 71회生日祝電

韓美 經濟협의회 美側 회장과환담

社會漫評

1人 1카드制

地平線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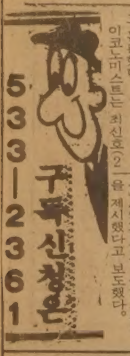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불고기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922-3111 (B)
791-8196 (R)


533-2361 구독신청은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런던지역 지국장입니다
강상권: ☎ 432-5931(B) 681-6925(R)

기사·광고·구독등 신문사 관계사항 일체에 관해 도움드립니다.
THESE TIMES NEED
THE KOREA TIMES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집
STEREO KING
●TELEFUNKEN (독일제품)
●SANSUI
●AIWA
●GRUNDIG (독일제품)
※비데오 취급합니다.
★ 교민께 특별봉사 ★

주소: 2989 DUNDAS ST.W. (킬×던다스)
전화: 766-4770 김봉훈

한국인 유일한
에코시 가구점
●최고품질의 차원 높은 가구
●친절봉사, 에프터 써비스
●특별염가

2300 YONGE ST
(영×에그린톤 센타)
486-0397 김만구

아버지代와 아들의 代

변해가는 文化環境 슬기롭게 대처를

아침에

李杜鉉 <서울大교수·民俗學>

正月대보름。해마다 이날이 가까와오면 都市의 한복판에서도 과일가게마다 밤·호두·땅콩같은것을 여느때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심지어 길거리에 나앉은 노점상도 볼수있다。이것은 물론 대보름날 이른새벽에 부럼깐다고하여 날밤·호두·은행·잣·땅콩·무우등을 깨물며『일년열두달동안 무사태평하고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않게 해 주십사』고 축수하는 부럼까기때문이다。

福조리팔기와 함께 마지막남은 거리의 명절분위기인것같다。나는 이때가되면 이제 반세기도 지난 어린시절 아버지가 사다주시던 땅콩이나 날밤과 함께 아삭아삭 씹던 흰엿의 맛이 생각난다。

바깥나들이를하시는 아버지가 부럼까기를 마련해서인지 대보름에는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더생각난다。내가자라던곳은 두만강변의 추운거리 H邑이었기에 밤새 밖에 두었던 엿은 꽁꽁 얼어서 그찬 감촉과 단맛이 하나가되어 입속에 녹아들며 잠을깨게하였다。지금의 아이들은 흰엿대신에 아이스크림을 즐겨먹고 자라니 隔世之感이없지않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는 어버미들의 정성이나 걱정은 예나 지금이나같지만 호남지방에 전하는 대보름 세시풍속에는 노두가 있다。달밤은 정월열나흗날 저녁에 부모들이 그해 자식의 신수가 나쁘다고 하면 개울에서 오장치에 모래를 파넣어 사람들이 개울을 건너다닐수 있게 징검다리를 놓는다。이같이 노두를 다놓고나서 돈、쌀등을 차려놓고 거리제를 지낸다。佛家의 현세의 세가지 공덕가운데 목마른자에게 물을 주는것이 첫째요、다리를 놓아 만인을 편하게 하는것이 둘째라고 일러왔었다。이러한 越江功德으로써 액막이를 하고자 원하는것이다。

특히 어버이들이 두려워하는것은 남녀의 나이가 제웅直星에 들때이다。제웅直星이 사람의 命宮 즉 生年月日時의 方位에 들면 짚으로 제웅을 만들고 제웅에 그 사람의 옷을 입히고、제웅머리속에 동전을 집어넣고、이름과 출생년의 干支를 적어서 정월열나흗날 저녁에 길가에 버려 그해의 액을 막는다。洪錫謨의 東國歲時記와 柳得恭의 京都雜志에 보면 이날밤 여러아이들이 밖으로 몰려와서 제웅을 내어달라고 하고、그것을 얻으면 머리부분을 파헤쳐 다투어 돈만 꺼내고 나머지는 길에다 내동댕이치는데、이것을 打芻戱라고 한다고 하였다。

또 판수의 占을 믿어 판수가 日直星、月直星이 命宮에든 사람은 모두 厄日을 만난다고해서 종이로 해와 달의 모양을 오려 나무에 끼워 지붕의 용마루에 꽂는다。또 달이 뜰때 횃불을 붙여 달맞이하기도 하였고、水直星이 든사람은 종이에다 밥을싸서 밤중에 우물속에 던져 액을 막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풍속에 直星중에서도 處容直星 즉제웅직성을 가장 꺼린다고하였다。제웅직성이 男子는 10세에 처음 들기 시작하여 水直星이 12세、日直星이 13세、月直星이 15세에 들고、19세때 다시 돌아온다。女子는 한해 늦게 11세에 들기 시작한다。直星이란 사람의 行年을 따라 그의 운명을 맡는 별인데、제웅直星을 비롯하여 土、水、金、日、火、計都、月、木直星의 아홉별이 있다。直星이 든다는 나이는 男女 모두 10대의 사춘기에 해당하며、심신의 동요가 심한 인생의 최대 위기임을 생각할때 元日에 三災막는 법과 함께 이같은 厭勝呪術들은 옛 사람들의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생활의 지혜요 생활기술로서의 매직(Magic)이며 자녀들에대한 관심임을 알수 있겠다。

東國歲時記와 京都雜志에 보면 또 이날 아이들이『집안 식구 아무개 무슨생、몸의 액을 없애 버린다』(家口某生身厄消滅)라는 글자를 연(鳶)뒤에 쓰거나 혹은「厄」자만을 연에써서 그 연을 띄우다가 해질 무렵에 줄을 끊어버린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대보름의 액연(厄鳶) 띄우기이다。중국의 연놀이는 겨울부터 시작하여 늦봄까지 즐기는 놀이나 우리나라 풍속은 겨울부터 정월보름날까지 날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만드는법과 종류를 소개하였는데、우리나라 연은 대체로 장방형에다가 가운데 원형의 구멍을 크게 뚫고 머리 쪽은 활모양으로 구부리어 활벌잇줄로 맨 다음、네귀퉁이에다 맨실을 한데 모아 연줄에 달고 얼레로 세워 날리는데 그 윗부분에 여러무늬를 그리기도하고 아래에는 꼬리를 달기도한다。東國歲時記에는 연의 종류로 바둑판연、머리쪽에 검은칠을한연、점반같이 둥그런 모양의 연、방패모양의 연、고양이의눈을 그린것같은 연、까치날개모양의 연、고기비늘모양의 연、龍의꼬리모양같이 길게된 연등을 들고있다。한편 韓國紙鳶의 硏究(崔常壽著)에 보면 꼭지연 6종、반달연 5종、치마연 8종、동이연 9종、초연 5종、박이연 4종、발연 3종、기타연 29종등 69종으로 분류하고있다。

이어 東國歲時記에는 아래와같이 연놀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다름바 없다。즉『연놀이를 할때에는 실을 겹쳐 아교로 붙칠러 깨끗하기가 흰 말꼬리와같다。혹은 치자물을 노랗게 들여 그끝에 연을 달고 종횡무진으로 세차게 날린다。그러다가 남의 연줄과 서로 교접하게 하여 남의 연줄을 끊고서야 快哉를 불렀다。그런데 바람을 거슬러 웽웽 소리를 내는것이 남의연줄을 잘 끊는다。연싸움을 심하게 하는사람은 사기가루나 구리가루를 연줄에다 바른다。

그러나 그연줄을 교접시키는 방법 여하에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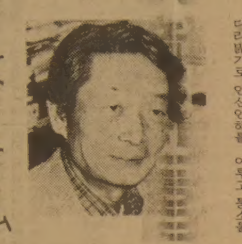
『그리고 매년 정월보름 하루 이틀전에는 水標橋근처의 淸溪川을 따라 아래위로 연싸움 구경꾼이 담을쌓은듯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그러면 아이들은 남의 연줄을 끊느라고 서있는자도 있고、혹은 패하는연을 쫓아가느라고 공중만 처다보고 물결속을 달리다가 남의집담을 뛰어넘고 지붕위를 넘어가기도 하나 그형세를 막을수 없었고、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고 놀란다。보름날이 지나면 다시는 연을 날리지 않았다』

이렇게 조선조의 연놀이의 설명을 읽어가고 있노라면 어느덧 어린시절 들판에서 정신없이 얼레를 잡고있던 흥분과 감격이 환상처럼 되살아 남을 느낀다。추운 겨울날 연싸움을 하다가 남의연에 연줄을 끊기고 울먹이며 자기연을뒤쫓던 그때의 분함을 잊을 수가없다。그것은 마치 지평선 너머로 영영 가버린 어린시절과도 같다고나 할까、이제는 다시 돌이킬수가 없다。

연날리기뿐만이 아니라 대보름날에는 다리밟기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퉁소를 불며 북을 치며 선소리패들의 소리가 興겨웠던 水標橋는 지금 장충단공원으로 옮겨져 유물이되고 淸溪川도 복개된지금 서울에서는 물론 시골아이들도 좀처럼 연날리기를 하지않는다。뉴욕한복판의 센트럴파크에서 아이들이 연날리기를하던 정경을 지금 부럽게 회상해본다。당초에 잘못된 도시계획에다 서부른 급씨에 개칠해가듯 팽창해가는 우리나라 도시에는 숨을 공간이없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첫째로 부러운 것은 숨을 쉴수 있는 공원이 있는 것이었다。특히 독일에서 부러웠던것은 도시주변의 어디에나 있는 숲과 그속에 마련된 산책로였다。도시한복판에서 마음놓고 연을 날릴수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명절때가 되어도 각종 세시놀이는 잊고 아침부터 TV의 특별프로나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아이와 어른들 — 그것은 도시나 시골이나 마찬가지이다。민속조사를 한다고 나설때마다 직면하는 이 시대의 推移를、그러나 咏嘆만 할수없을것이다。아버지代의 명절에 날리던 연대신에 오늘의 아이들은 모형비행기를 날려도 되고、행글라이더로하늘을 날아도 될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주어진 文化環境이라면 그것을 굳이 막을수도 없고、막아지지도 않을것이다。民俗社會의 구조적인 변동에따라 일어나는 이러한 文化變容은 보다 넓은 시야에서 고찰되어야하며 도시민속학이니 현대민속학이 요청되는까닭이지만、거기에는 다만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삶의 자세와 새로운 생활의 지혜가 요구될뿐이다。인간은 컴퓨터가 아니며 무한한 창조의 잠재력을지닌 존재이기때문에 우리는 이시점에서 결코 절망하지는 않지만 다만 우리는좀더 슬기로와져야겠다고 생각한다。



佛共産黨대표、곧 中共방문
관계改善위한 움직임 활발

【北京·파리5日AFP=聯合】프랑스공산당대표단이 중공의 초청으로 곧 중공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조르지·마르셰 프랑스공산당당수가 5일 말했다。

지난60년대 중소이념분쟁중 소련을 지지했던 프랑스공산당이 중공을 방문하기는 중소관계가 악화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중공은 또 중소분쟁이후 처음으로 현재 프랑스에서개최중인 제24차 프랑스공산당 全黨大會에 駐佛대사를 단장으로하는 대표단을 참석시킴으로써 양국 공산당관계의해빙을 위한 첫 움직임을 보였다。

마르셰당수는 앞서 3일기자회견에서 프랑스공산당이 소련과 기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것이나 그를 비판할수있는 권리 또한 유보할것이라고 강조했었다。

中共은 지난80년 엔리코·베를링구에르 이탈리아공산당당수의 北京방문을 계기로 이탈리아 공산당과의 유대관계를 재개했으며 지난해에는 스페인공산당과 관계를 정상화했었다。

蘇외교관2명 追放
노르웨이政府 통고

【오슬로5日AFP=聯合】노르웨이주재 소련외교관 2명이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노르웨이를 떠나도록 통고받았다고 노르웨이 외무성이 5일 발표했다。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통해 노르웨이주재 소련상무관 레그·D·도코우도프스키와 무역사절단관리인 에브게니K·보필로프스키가 그들의직책과는 맞지않는 활동을 했기때문에 출국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슬로의 베르덴스·강지는 이들2명의 소련외교관이 미F16전투기의 부품생산업체들에 고용된 노르웨이인들을 매수하려했다고 보도했다。

中共、反鄧세력 肅清착수
鄧직접干與…黨·政간부數千대상

【北京5日UPI=聯合】중공의최고실권자인 당부주석 鄧小平은 한동안의 와병설을 뒤엎고 최근 마침내 자신의 현대화 정책들에 반대 또는 이를 훼손하는 수천명의 당·정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에 착수했다고 北京의 서방외교관들이 5일 전했다。

이와 함께 중공당기관지 인민일보와 이론지 紅旗도 이날 최근 수개월만에 탐문제에 관한 가장 강경하고 포괄적인 기사를 게재、鄧小平派와 그 반대세력간의 막바지 대결이 이미 시작됐음을 분명히 했다。

紅旗는『모든 수준의 최고위급 지도층 인사가 이번 정화작업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전제하고『당부주석 鄧小平 정책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들의 지도적 직위를 박탈당해야하며 중대한 실책을 범했거나 완전한 무능력자들은 당에서 축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서방외교관은 鄧小平派가 그동안 이념적 적과 부정부패자및 무능관료들에 대한 숙청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다음주부터 약10일이내에 구체적인 숙청광경을 눈으로 확인할수있게 될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외교관은 또『鄧派의인내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그들은 이미 숙청작업을 전개하고있다』고 말하고 이번 당·정재편성에는 수만명은아니더라도 수천명이 그 대상에 포함될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서방외교소식통들은 약20만명이 이번 숙청작업의 대상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관들은 鄧小平이 이번 숙청작업에『깊숙이』관여하고 있다면서 그는 아마도 현재 남부 廣東省일대를 여행중인것같다고 전했다。

메아리

5월께부터「단축 다이얼」「착신통화 전환」「부재중 안내」「통화중 대기」등 얼핏들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새로운 전화 서비스가 개시된다。MFC푸시버튼전화기만 가지고 있으면 번호 2개를 눌러서 단골상대와 통화(20개대상한정)할수있고 외출을하도 나가있는곳으로 전화가 걸려온다。또『지금 외출 중입니다。몇시에 돌아 옵니다』하고 전화에게 안내도 부탁해 놓을수 있다。

전화가 통화중이라도 신호자와 상대편이 통화를 할수있게된다。그뿐 아니라 지정시간 통보라 하여 기상시간을 알려놓으면 그시간에 전화벨이 울려 깨워주기까지 한다。전자식전화시설의 보급과 더불어 누리게될 새로운 서비스들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전화체제율이라든가 전화보급률은 선진국과 비교할수 없을만큼 아직은 뒤져있다。체신부의 전화보급계획을 보면 81년 인구1백명당 8·9대이던것을 82년에 10·4대로 올릴것이라 한다。미국 77대、일본 44·1대、프랑스 37·2대(모두 79년현재)에 비하면 엄청난 낙후상이지만 뒤박질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체신당국의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

市內 時分制

하나 올해의 체신부 업무계획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 하나가 있다。앞으로는 시내통화라 할지라도「時分制」를 적용하여 기본시간을 넘기면 추가요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통화는 요령있게、짧게 하는것이 마땅하고 또 하나의 에티켓이다。한번 통화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다 늘어놓는 한가한 사람을보면 사실 짜증스럽다。5분이고 10분이고「통화중」일때는 혈압이 오르기까지 한다。

그러나 요금을 올려가면서까지 이런 무분별통화를 근절하겠다고 나서야 옳을는지는 생각해볼일이다。시내전화를 시외전화처럼 時分制로 하자는 얘기는 전에도 나왔으나 다른 선진국의 대도시에서 이제도를 쓰는데가 그얼마나 될까。가까운 日本을제외하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는「時分制」를 적용하지않고 있다。

전화만들면 얘기가 길어지는 습관성통화자에게 체신당국이 취한조치는「계몽」이지 요금할증방안은 아닐것 같다。물론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나 서비스개선、전화보급에 더욱 힘쓰야할 우리 처지로서는 아직 시기상조인 착상이자 계획일것 같다。

蘇、중거리核미사일彈頭 배치
8백40基…史上최고

【본5日聯合】소련의 중거리핵미사일탄두수는 사상 최고수준에 도달했으며 소련이 SS20미사일의 배치를중지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西獨정부가 5일 말했다。

로타르·루엘 西獨정부대변인은 이날 서방첩보위성의 최신 정보를 인용、소련이 지금까지 각각 3개의 탄두를 장치한 SS20미사일 2백80기를 배치함으로써 8백40개의 탄두를 갖게되었으며 또한 각각 9개의 미사일발사대를 갖춘 발사기지 5개의 건설을 완료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련이 구식 단일탄두식 SS4、SS5 미사일을 점차 철수중이나 2백75기의 SS4、25기의 SS5를 여전히 배치、소련의 중거리미사일수는 사상최고수준인 5백80기에 달했다고 말했다。

슈라이너의원은 앞서 소련공산당 국제국수석부국장 바딤·자골린이 지난주 자신을 만난자리에서『소련이 SS20배치를 무기한 중단』했음을 밝혔다고 전했었다。

◇再信任획득한 슈미트首相 5일 의회의 신임투표에서 승리한 슈미트西獨수상(가운데 웃고있는 사람)이 社民黨의원들에 둘러싸여 축하인사를 받고있다。그는 이날 4백97명의 재적의원중 2백69명의지지로 정치위기를 극복했다。【본7日聯合】

蘇、PLO에 미사일등 供給
軍裝備포함 5千萬弗 규모

【다마스커스5日聯合】소련은 지난3개월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 대해 5천만달러상당의 각종무기와 군사장비를 공급했다고 팔레스타인소식통들이 5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소련이 지난해10월 야세르·아라파트 PLO의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때 무기공급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공급된 무기가운데는 지대공및 지대지미사일과 야포·이동식레이다시스템등이 포함돼있다고말했다。

또한 PLO군사전실장 사드·사엘준장이 이끈 PLO대표단은 지난달 1주일간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세부적인 무기공급및 훈련문제들을 타결지었다고 이소식통들은 밝혔다。

소식통들은 또 PLO장교들이 현재 북괴·소련·파키스탄·인도·쿠바및 동구의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있다고 전했다。

美原電 또事故
放射性침전물流出로 汚染

【뉴욕5日AP=聯合】뉴욕에서는 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침전물이 유출、3명의근무자가 오염됐으며 네브래스카州의 두개핵발전소에서는 사소한 방사성누출사고로 대기권이 오염되었다고 원자력발전소 관계자들이 5일 발표했다。

네브래스카州 오하마 부근의 포트·캘훈 핵발전소의 核누출사고는 지난 3일 발생한것으로 사고당시 대피했었던 일부근무자들의 건강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핵규제위원회는 전했다。

또한 뉴욕州 오스위고부근의 핵발전소에서는 4일 방사성침전물이 저장탱크로부터 원자로 설치건물의 통풍장치에로 뛰어들어가는 바람에 나이애가라·모호크발전회사근로자 3명이 오염됐으나 큰 위험은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1월25일 오스위고96km 서쪽 R·E·진나 핵발전소에서의 튜브파열사고이후 두번째 발생한 것이다。

對이스라엘關係 단절促求案
유엔臨總채택…골란合併응징

【유엔본부5日AP=聯合】유엔임시총회는 5일 이스라엘정부의 골란고원 병합결정에대한 응징으로 유엔전회원국들에 이스라엘과의 외교·원조·무역관계를 단절할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86대21、기권34로 채택했다。

유엔안보리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 유엔임시총회는 6일간의 회의끝에 이날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고립시키기위해 모든 회원국이 이스라엘관계를 단절하라고 촉구하는 이같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배럴當 1弗인하
이란、油價재조정

【런던5日AP=聯合】이란은 5일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난해12월 유가를 재조정한 이래 OPEC회원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유가를배럴당 1달러 공식인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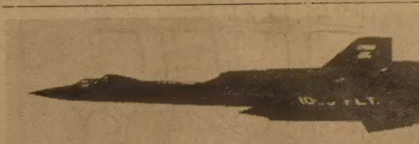
소식통들은 이란국영석유회사가 이날 고객에게 이란산경질유의 유가를 30일외상거래의 경우 배럴당 34·20달러에서 33·20달러로、60일외상거래의 경우는 34·55달러에서 33·55달러로 각각 인하、2월1일부터 소급적용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도 이란의 유가인하조치에뒤이어 배럴당 36·50달러에서 35·50달러로 1달러 인하했는데 정통한 석유소식통들은 현재 사실상 할인유가를 제의하고있는 다른 석유수출국들도 이란과 영국에 뒤따라 유가를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外信안테나

◆美콜럼비아號 내달22일 3차飛行=美國의 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가 오는3월22일 상오10시(한국시간 밤12시)부터 3차 시험비행을 실시、1주간의 임무를 마친후 29일 캘리포니아주의 기지에 귀환하게 될것이라고 조지·부시부통령이 5일밝혔다。

부시부통령은 이날 내년가을 우주왕복선에 실어 우주에 띄울 목적으로 유럽에서 제작한 우주실험실 완공기념식에서 연설하는가운데 그같이 밝혔는데 이는 얼마전에 발표됐던 발사일정을 다시확인한 것이다。【케이프카내베랄=AP】



◇세계 最高速機 최근 세계에서 최초로 1천회의 정보수집 비행기록을 수립한 美정찰기 SR71블랙버드의 高空비행모습。블랙버드는 음속의 3배이상이다。【뉴욕5日AP聯合】

海外토픽

엘女王、오늘即位30周年
英신문·TV들 業績찬양

엘리자베드 영국여왕이 6일로 즉위30주년을 맞았다。

5일자 데일리·미러지는『오래오래 재위하소서』라는 표제로 1면 머리기사를 장식했으며 다른 신문들과 TV들도『여왕의 덕망』과『화려했던 여왕의 재위30년』을 찬양했다。

휴가차 케냐의 한 휴양지에 머무르고 있던 엘리자베드·알렉산드라·메리공주가 1952년 2월6일 아버지인 왕 조지6세의 서거소식을 들었을때는 25세였다。

『그후 30년간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여성이되었다』고 미러지는 찬양했다。

재위 30년동안 여왕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양을 받았으며 군주제가 사라져가는 세계의 추세속에서도 영국의 왕실을 확고하게 굳혀나갔다。

그러나 즉위30주년을 맞는 여왕에 대한 평가가 모두 비판적인것만은 아니어서 베스트셀러「폐하」의 저자인 레이시씨는『여왕이 남편인 필립公처럼 대중앞에서 유창하게 연설을 구사하지못할뿐아니라 아름 찰스황태자처럼 가벼운 유머로 대중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지도 못한다』고 꼬집었다。【런던=IPI】

日 死刑囚細菌실험

★終戰후 日 진주美軍 2차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을 점령한 미군은 사형수들을 상대로 세균실험을 실시하도록 일본후생성과 과학자들에게 지시를 내린사실이 있다고 마이니찌(每日)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이날 신문을밝히지않은 전직후생관리의 말을 인용、일본점령미군사령부후생국이 지난46년11월 일본후생성과 東京대학측에대해 일본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진티푸스균을 주입하도록 요청했었으나 후생성과 대학당국으로부터 항의를받고 사형수들에게 세균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東京=AP】

한국도 加入
유엔 多國籍企業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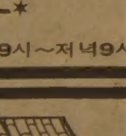
정부는 지난5일자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보조기구인유엔多國籍企業위원회에 가입했다고 외무부가 6일 발표했다。

유엔 多國籍기업위원회는 多國籍기업에관한 전반적인 검토와 의견교환을 위해 지난74년12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결의로 설립됐으며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한 48개국이다。

당신의 운명을 말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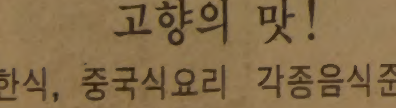
(손금 카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드립

●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시는 당신께 꼭히 도움이 되어드릴것을 약속합니다.
● 인생을 살아가는데는 어느분이든 예외없이 충고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 한번와 보세요! 초능력적인 힘을 보실것입니다.
● 예약은 필요없읍니다.



PRIVATE AND CONFIDENTIAL READINGS

291 AUGUSTA AVE
921-0552 7일 오픈 9시~저녁9시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532-0602

♡ 주간여성 ♡

인기절찬 판매중!

2월7일자

주간女性

<탤런트 林智英>

31살 미모의 女僧이 대학首席졸업

—東大 불교학과 海住 스님의 캠퍼스 追憶

두女大生의 수석 졸업 秘訣

行者 스님이 서울大에 合格

빛나간 대학 知性의 문젯점

續·藝女列傳 吳나라 西施

여배우들 러브신 촬영 秘話

별짜人生 산 헬드클럽 관장

컴백說 도는 金昌淑 데뷔記

잉꼬 夫婦가 조각배 타고 고기잡이 同苦同樂

캐나다 首相 부인의 男性 편력 自敍傳 2彈!

판매처 : 각한국식품점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 Drive in Hamberg Shop.
주매상 : $13,000 바쁜 네거리에 있음.
가격 : $385,000

* Donuts Shop
주매상 : $4000.5,000.6,000.6500

* Variety Store
주매상 : $6000.5,000.4,500.4,000

★ Shopping Centre
①Breadman과Health food Store
주매상 : $5,000 전망밝은 지역.
가격 : $229,000
②Gift 와Hobby Store
년매상 : $170,000
가격 : $80,000
③Television, 전축
년매상 : $300,000
가격 : $35,000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 368-4215, 368-0114

越南한 할아버지 望鄕의집념 40년

離散친척 41명을 찾았다

馬山서 조카딸 극적 相逢인연

전국 방방곡곡 누비며 수소문

咸南 洪原출신 崔順河 할아버지

북녘 고향땅을 떠나 남한 곳곳에 흩어져있는 친척「41명」을 고진스럽게 모두 찾았다。 얼핏보아 미련스럽게 느껴질수도 있는 외고집이다。 그러나 그북녘땅에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친척을 두고온 실향민들에게는 그「의지」가 그럴수없이 돋보인다。 가볼수없는 산하(山河)이기에、애향심은 세월이가도 식어질수가 없는 것이다。

망향의 집념을 이산(離散) 친척찾기로 풀려운이는 崔順河씨(62·출판업·大邱市 東區 邦里1洞806)。

崔씨가 꿈에서라도 가보고 싶은 고향은 함남洪原郡三湖面의 속칭「나흘애(羅屹崖)」。 咸興에서 동북부로 80리길인 이곳은 산악이 병풍처럼 둘러싸고있는 산골중의 산골이다。 이곳을 떠난지 40여년。 그래도 고향이 좋은 그에게는 고향길가의 돌멩이 하나 풀꽃하나도 눈에 생생하기만 하다。

삿갓봉아래 조그만 내가흐르고 각종 배나무가 많은 나흘애의 6·25동란전 인구는 元興、中興、上中興、中陽里를 합쳐 고작 5백여명。 崔氏姓이 39가구로 가장 많고 나머지 李氏、金氏、韓氏、姜氏、宋氏등이 30여가구에 달했다。

명태、가자미、은어등을 무려 만큼 함경도 특유의 식혜로 유명했던 이곳은 인심좋고 산수가 수려한 한폭의 그림같은 고향땅이었다。

崔씨가 고향을떠난것은 지난41년 스무살때였다。 興南과 만주를 전전하던 崔씨가 8·15해방을맞았으나 얼마안돼 45년11월 新義州학생 사건에 연루돼 형무소에 수감됐다。 평소잘 알고 지내던 간수의 도움으로 비교적 쉽게 풀려난 崔씨는 47년 5월 海州를 거쳐 월남、6·25가 일어나자『이제는 고향에 갈수있겠구나』하는 일념으로 군에입대했다。 그러나 고향에는 못가보고 평북 泰山까지만 진군을 했을뿐 제대하면서 大邱에정착했다。

잠시도 고향을 잊지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고향사람을만나게된것은 고향을떠난지 12년만인 지난53년4월。 경남馬山에서였다。 복잡한 길거리에서 젊은여자의 귀에 익은 고향사투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만나서 물어볼것도 없이 사투리의주인공이 질녀 崔金南씨(당시 27세·현55세)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조카딸로부터 많은 고향사람들이 1·4후퇴때 배편으로 興南부두를 빠져나와 월남했다는 사실을 들은 그는 그날부터 시간만 나면 이들을 찾아나섰다。

그는 당시 興南을 빠져나온 대부분의 피난민이 1차로 수용됐던 巨濟島를 비롯、麗水、珍島、全州、釜山、서울、前山、安養등 손으로 헤아릴수 없을만큼 많은도시를 오가며 다시 만나게된 친지로부터 또다른 소문을듣고 그사람을 또찾아나서 월남한 고향친척이 모두 41명이란 것을 알아냈고 지난해11월에는 강원도 楊口까지 찾아가 조카딸 吉女씨(56)를 42년만에 만나게됐으며 이로써 남한에서 살고있는 고향친척들을 모두 찾아냈다。

고향친척들의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뿌리를 보여주고싶은것이 객지에서 환갑을맞은 그의 뜨거운 소망이었다。

그는 아무래도 당대에 통일되기는 어려우리라는 생각에 지난연말 고향의 위치와 주민실태、생활수단등을 소개하는 조그마한 팸플리트를 만들어 고향사람들에게 보냈다。

12페이지로된 이 팸플리트의 제목은「우리고향 우리조상 우리친척」。 고향마을을 집집마다의 택호를 표시한 지모、교통수단、교육정도、마을의 옛풍속、집집마다의 택호도 정성들여 써놓았다。 손자들의 손목을 잡고 고향산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하나하나 일러주고싶지만 그렇지못한 현실에 지도와말로라도 그뿌리를 익혀주면좋겠다는 생각에서다。

崔씨는 고향친척을 찾아내는 일외에도 6·25당시 1·0·5부대의 옛전우로 大邱에 거주하는 사람들로「永友會」를 조직、남북한의 평화적통일을 기원하는 활동을 벌이는등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하고있다。

고향친척들을 일일이 다 찾아낸 남녘에서 제2의「나흘애」를 이룩한 그는『하루빨리 통일이 이뤄져 생전에 고향땅을 밟아보는 것』이 마지막 남은 소망이라면서 북녘으로 쏠리는 눈길을 되돌리지 못했다。

【鄭秉鎬기자】

◇이산(離散) 친척찾기에 나선 崔씨가 지난해11월 강원도楊口에서 마지막 친척인 질녀 吉女씨를만나 웃음꽃을 피우고있다。

"당대統一 보게될지…" 故鄕팸플리트

선데이 스토리

住宅街 大型애드벌룬 爆發

어린이 4명負傷 家屋파손

突風…TV안테나에 찢겨

【仁川=聯】 주택가에서 대형 애드벌룬이 터져 인근에서 놀던 어린이 4명이 중화상을 입고 인근 가옥이 반파됐다。

6일 상오11시께 경기仁川市北區鶴田洞765 강태선씨(35)집 지붕위 1m 높이에서 직경3m의 대형 애드벌룬이터져 강씨집마당에서 놀던 강씨의장남 국식군(13·富平국교6년) 차남 정화군(8·〃2년) 장녀 정순양(3) 3남매와 정상진군(8·富平국교2년)등 모두 4명의 어린이가 각각 2도화상을입고 인근 유건일외과에 입원 치료중이다。

또 풍선이 터질때의 충격으로 강씨의 25평짜리 한옥이 반파됐으며 인근 가옥10여동의 유리창 1백여장이 깨졌다。

이 애드벌룬은 신진주택(대표 홍용섭·45)이 인근에 건축한 어린주택 분양 선전을위해 지상40여m에 띄워놓았던 것으로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자 지상으로휩쓸려 내려오다 강씨집등 부근주택가에 설치된 텔리비전안테나에 찢기면서 터져 일어난것。

경찰은 신진주택대표 홍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원인등을 조사중이다。

百원짜리僞造주화

三千浦、술값으로 받아

【三千浦=聯】 6일하오3시께 경남三千浦시 仙龜洞135의5 정옥란씨(60·주점주인)가 술값으로 받은 2천4백원중 1백원짜리 위조주화 1개를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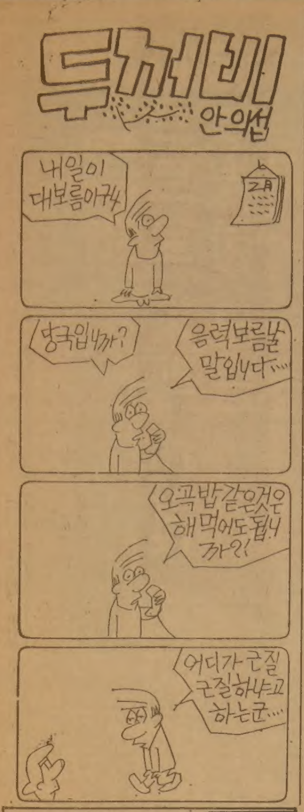
전여인에 의하면 이날 30대 남자로부터 술값으로 받은 1천원짜리 2장과 1백원짜리 주화4개 가운데서 위조주화가 섞여있었다는것。

이 위조주화는 프레스기로 압착된 것으로 직경이 진짜 주화보다 1㎜가 작은 2·3㎝였으며 두께도 1㎜가 얇아 가볍고 진짜 주화와 같은 요철 테두리가 없을뿐만 아니라 세종대왕 초상및 한국은행 활자도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을정도로 흐리게 찍혀있었다。

작업거부女工10명 6시간 감금

【龜尾=聯】 노동부 龜尾지방사무소는 6일 錦和직물(龜尾市工團洞292) 공장장 張岩伊씨(33)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회사대표 尹相福씨(5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張씨는 구정휴가를 앞둔 지난달 23일 자정까지 작업을 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무를 지시했으나 이중 沈永姬(21) 金海玉(19) 金貞愛(21)양등 10명이 고향갈 준비를 해야 한다며 작업을 거부하자 이날 하오8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2시30분까지 6시간 동안 이들을 사장실에 감금하고 불을 꺼버렸다는 것。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6살女兒 유괴 殺害

깊은 산속에끌고가 목졸라暗埋葬

2백만원요구 협박편지…30代구속

강원旌善경찰서는 6일 유치원에다니는 어린이를유괴、목죄어 숨지게한후 가족들에게 돈을요구한 咸潤植씨(36·노동·강원旌善郡舍北邑舍北1里6)를 미성년자 약취유인및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咸씨는 지난3일상오10시께 평소 눈여겨두었던 邊萬洙씨(40·舍北邑동원국교용원)의 장녀 美鉉양(6·동원유치원생)을 집부근 전자오락실에서유인、집으로 데려온후 30㎞떨어진 산속으로끌고가 붕대로 목을죄어 숨지게하고 암매장했다는것。

함씨는 미현양을 살해한후 변씨집에『3일밤11시까지 舍北1里 동원보건원앞 철로밑에 2백만원을 가져오지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는 협박편지를 내고 기다리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5일하오7시께 붙잡혔다。

함씨는 생활이 어려운데 부인마저 집을 나가 5남매를 키우기 힘들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실종된 仁煥군。

4살 4代獨子실종

"잘있다"50代여인怪電話만

4살짜리 4대독자가 실종된지 17일이넘도록 돌아오지않고있어 경찰이 수사에나섰다。

서울道峰區孔陵2洞573의2 金東一씨(35·회사원)의 외아들 仁煥군(4)이 지난달21일하오2시께 집에서 2백m떨어진 놀이터로 간다며 혼자집을 나갔는데 6일까지 행방을 알수없다는것。

부모들은 지난1일 수배전단 1만5천장을 만들어 뿌렸으나 仁煥군의 소식은없었고 50대여자가 전화를 걸어『仁煥이는 잘데리고있다』고만말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또 6일 낮12시께도 25세가량의 여자가『淸凉里역전 오른쪽 위치에 仁煥이를 데려다놓을테니 찾아가라』고 전화를 걸어 부모들이 찾아갔으나 허위전화였었다。

경찰은 金씨가 보증금70만원에 월세5만원짜리집에 살정도로 가난하며 평소원한을 살만한일이 없다는 가족들의 진술에따라 자식이없는 사람들이 키우기위해 仁煥군을데려간것으로보고 수사를 펴고있다。

"마라톤上午중에 실시"

LA올림픽 組織委員밝혀

【패사디나5日UPI=聯】 오는84년의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조직위책임자들은 운동경기의 골든아워 TV중계를 위해 … 해리·어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마라톤이나 도로사이클등 오랜시간을 끄는 경기가 스모그나 뜨거운 열로부터 선수들이 고통받지않도록 상오중에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OC、국제스포츠연맹및 로스앤젤레스올림픽위원회간의 회의를마친뒤 회견에서 스모그 현상발생가능성이 운동경기의 계획에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일 대보름 부럼을 깨 厄을 쫓는다는 정월대보름(8일)。 대보름을 앞두고 찹쌀·수수등 잡곡류와 밤·호도·잣·땅콩등 보름성수품이 시장에 쏟아져나와 손님의 발길을 끌고있다。 평소보다 10%이상올라 땅콩이 한되에 8백~1천원선。 <서대문구홍은동유진상가>

東京 民藝館에서 高麗靑瓷등 도난

【東京6日=聯】 東京의 유명한 민간박물관인 재단법인 일본民藝館에 전시중이던 고려청자등 1천만엔상당의 옛 한국도자기가 5일 도난당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도난당한 도자기는 7백만엔을 호가하는 고려청자와 李朝硯滴등 모두 7점이다。

全大統領내외 親書

天安 또순이女工에

【天安=聯】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2백51만원을 저축한 또순이 여공 金仁善양(24·蓮花中2년)이 5일낮 全斗煥 대통령내외가 보낸 하사금 1백만원과 격려친서를 이곳출신 鄭善昊의원(民正)부인 徐相玉여사를통해 전달받았다。

金양은 유아시절인 5세까지 大田 仁愛영아원에서 자랐고、5세서 12세까지 大田성육원에서、12세이후는 牙山郡溫陽邑防築里 프란나애육원에서 자라난 고아로서 19세때에 國際방적공장에 들어가 지금껏 2백51만원을 저축했고 지난해10월엔 고아원서 사귄언니 吳亨蘭씨(31·牙山郡仁州面冷井里)에게 1백20만원을 주어 송아지2마리를 사서키우도록하는등 어려운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前期大합격자 登錄포기 늘어

작년 10倍도

再修겨냥

올해 전기대학 합격자 가운데 미등록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나고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延世大、高麗大、崇田大、檀國大、淑大등 대부분의 전기대학들이 5·6일 신입생등록을 마감했으나 漢陽大의경우 2백78명이 등록을 포기하는등 상당수의 대학에서 미등록자가 지난해에비해 최고10배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현상은 경기불황에도 원인이있지만 이보다 2·3지망합격자들이 재수를노려 등록을포기한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대학미등록자수는 다음과같다。(괄호안은작년)

▲慶熙大=76(0) ▲崇田大=81(8) ▲外大=78 ▲延世大=67 ▲成大=40(90) ▲淑大=23 ▲世宗大=45 ▲國民大=50(37)

B型毒感 日서猛威

2週間 50만명感染

【東京6日UPI=聯】 강력한B형바이러스독감이 지난2주일동안 일본전역을 휩쓸어 5일현재 약50만명이상이 감염돼있다고 일후생성이 밝혔다。

韓日 2차實務회담 15~20일께

【東京6日=宋孝彬특파원】 韓日양국은 60억달러 경제협력문제를 타결키위한 제2차 고위실무자회담을 2월15일~20일 사이에 열것에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일정을 조정중에 있다고 6일 일본 외무성 소식통이 밝혔다。

일본측은 제2차 실무자회담에서 한국측이 제시한 11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면 일본측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정부개발차관(ODA)、수출입은행자금등으로 분류、총액을 제시한뒤 3월 서울에서 열릴 韓日외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문제를 타결하고 5월 韓日정상회담을 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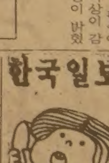
스즈끼(鈴木)수상은 예산심의를 위한 국회에서『韓日양국간의 현안문제인 경제협력문제는 가능한한 조속히 외상회담을 열어 매듭짓고싶다』고 말했다。

圖書館 한郡에 한곳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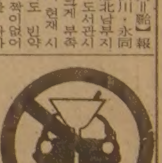
7만4천學生數비해 크게 不足

【永同=聯】 報恩、沃川、永同등 忠北남부지방에 도서관시설이 크게 부족한데다 현재 시설마저도 빈약하기 짝이없어 제기능을 다하지못하는등 이에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되고있다。

이 지방에는 1백13개국교 4만1천명、24개중학교 2만1천명、15개고교 1만2천명등 모두 1백52개교 7만4천여학생이 있는 이지방엔 현재 報恩과 永同등 2곳에 郡教育廳이 경영하는 도서관이 각각1개씩 있을뿐 여타의 공·사설도서관은 전무한 실정으로 도서관의 절대수가 크게 모자라는 형편이다。



한국일보
533·2361



제일식품

"많이 달라졌읍니다"

大세일

소문없이 싸게 팝니다.

1차 왕림해 주셔서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언제든지 가정에 배달해 드리니 전화주문도 환영 합니다.

712 BLOOR ST. W. (아리랑하우스 옆) 전화 : 532—1054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여보! 아래층에서이상한 소리가들려요!"

"미안해요, 여보…제가 잘못들은게틀림없어요. 다시 주무셔요"

"당신 꼭 그래야만 했어? 이건 정말로 하는 얘기야… 이제내잠이멀리 달아나버렸어!"

"제발좀, 여보…당신이 그렇게 중얼대시면제가 어떻게 잠들수 있겠어요?"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사르트르 末期 10년 赤裸裸한 모습 그려

시몬·보브와르女史「告別의 儀式」펴내

지난80년4월 76세로 他界한 세기의 知性 장·폴·사르트르의 末期의10년을 담은 傳記「告別의儀式」(La ceremonie des adieux)이 최근 파리에서 출간돼 프랑스는물론 유럽文壇에 화제를 던지고있다.「告別의 儀式」은 사르트르와의 계약결혼으로 그의 평생의반려자였던 시몬·드·보브와르여사(74)가 자신의 일기를 기초로 사르트르의 마지막발자취를 그려냈다는점에서 관심을 끌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경쟁이붙어 中央日報社의「이별의 儀式」, 두레社의「작별의 예식」으로 각각나온이 책은 특히 사르트르의 투병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죽음앞에서는 무력할수밖에없었던 한철학자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사르트르와 보브와르의 행복했던시절 (48년)。

보브와르여사는「告別의 儀式」서문에서『사르트르를사랑했고、지금도 사랑하고있으며、앞으로도 사랑할 사람들에게 이책을 보인다』고말하고『내책중에서 인쇄 되기전에 당신(사르트르)이 읽지못한 아마도 단한권일 첫번째책』이라고 울먹이고 있다。

「告別의 儀式」에 의하면 사르트르는 담배와 술을 무척 좋아했던것같다。담배는 하루에 두갑、그리고 술도취하도록 위스키를 마셨다고한다。

사르트르가 건강에 赤信號를 느끼기시작한것은 지난68년부터。사르트르와 보브와르는 로마를 여행중이었는데 트라스테베레의 산타마리아 광장에서 차를 내릴때 사르트르는 다리를 휘청거려 보브와르여사가 그를부축해야만 했었다。물론 54년에도 소련여행중 고혈압으로 쓰러진적이있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안되었다。

보브와르여사는 그때의 일을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별로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놀랐다。왜냐하면 그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상태였기때문이다。집에 돌아온후 그렇게 쾌적하던 스튜디오의 색깔이 갑자기달라진듯했다。아름다운 벨베트양탄자는 爽服을 연상시켰다』—이때의 증세는고혈압이 主因이었는데 혈압은 1백80을가리켰다。

사르트르는 71년 6월 66세의생일을맞은후자신의죽음을 대비했었던것같다。이때 사르트르는 보브와르여사에게「告別의儀式」이라는말을처음사용하면서 보브와르 여사의 어깨를가만히 손으로만졌다。

사르트르는 73년께는 약간의 노망기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있다。

보브와르여사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적고있다。

『그는 아를레트와함께 점심을 들었다。「그는 나에게 그녀가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지않더라고 말했다。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아를레트가 전화로 내게 그까닭을 알려주었다。사르트르가 그녀에게「자기 담배갑이 시냇물에서 불에탔다」고 말하더라는것이다。그녀가 의심스러운듯이 그를 쳐다보자 그는「너는 내가 노망이 났다고 생각하지、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야」하고 말했다는 것이다』

68년부터 健康惡化·73년 노망기 疾病 5~6가지 이미 죽음 豫見

出版되자 유럽文壇서 話題…國內선 두곳서飜譯

보브와르여사는말년의사르트르는 온갖 질병을 지니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고혈압(최고200~최저120)、당뇨병、녹내장、齒牙、그리고 그의 직접 死因이된 폐 수종등…。따라서 그는 끊임없이 질병에시달렸고 또 이를 두려워하고슬퍼했었다。

사르트르는 가끔 자신이폐인이 돼가는데 대해보브와르여사에게 짜증을 부리기도했으며 낙담해하기도했다고「告別의儀式」은 적고있다。

73년6월 무렵 사르트르는 매년 그러했듯 안과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는 그에게 이미 시력의 10분의4를 잃었다고 통고했다。그런데다 그는 한쪽 눈밖에 쓰지못했다。그는 돋보기를 통해서도 신문기사마저 읽을수없었다。

사르트르는 74년부터 의사들이 투여한 약때문에 소변실금증이 생겨났고、齒의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렸다。어느날 오후 그는 집에 돌아오다 그만 옷에 오줌을 싼일이 있었다。보브와르여사는 이때의 일을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있다。

『나는 그 곤혹스러운 일을 수습하도록 도와주었지만 그가 이일로 고통받지나 않을까하고 무척 두려워했다』

75년사르트르는보브와르여사에게『인간이 1백세까지 사는것은 바람직하지못하다』고 얘기했다。그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고통에서 나온것인데 이떤 상담한 신경질증세까지 보이고있었다。

사르트르는 이해10월 스페인 총통 프랑코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프랑코를가리켜『라틴의 개자식、구역질나는 놈』이라고 인터뷰한내용이 신문에 보도 돼 독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했다。

사르트르가보브와르여사에게 마지막남긴말은 80년4월14일 그가 죽기 이틀전『당신을 사랑해、나의 카스토르(보브와르의 애칭)』였다。

보브와르여사는사르트르의 죽음을 지켜본 우세박사의말을 인용『사르트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않았지만 그를 불안에 떨게했던것은 그의腦였다』고 말하고 있다。보브와르여사는 사르트르가 죽음을두려워하지 않았던것은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기때문이며 어쩌면 체념에서 자신감을 되찾았던것으로 분석했다。

보브와르여사는「告別의儀式」에서『비록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고있지만、또 나의 죽음이 우리를 결합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다지도 오랫동안 서로 조화를 이룰수 있었다는것만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고 사르트르와의 행복했던시절을 회상했다。

【丁薰기자】

우리現代舞踊 첫 유럽舞臺

陸完順무용단 내달 런던·파리 公演

한국의 현대무용이 처음으로 유럽무대에 선다。민속무용이 아닌 모던·댄스로 본바닥 런던과 파리무대에 진출하는 한국의「춤」은 陸完順현대무용단으로、오는 2월15일부터 21일 사이에 런던의 커먼웰드극장과 파리 망다파극장、앙드레·말로극장에서 공연을갖는다。파리한국문화원의 초청형식으로 마련된 이공연은 한국 현대무용의 수준을 세계적인무대에서 바르게 평가받을수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陸교수에 따르면 이번공연은 지난해 파리 망다파극장의 밀레나·살비니감독이 한국문화원측에 陸교수의 현대무용단을 초청하고 싶다고 먼저 제의해옴으로써 이뤄졌다。

陸교수는『그러나 그곳까지의 교통비와 체재비가 엄두가나지않아 망설이고 있었는데 한국문화원측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서 겨우섭사했다』고설명한다。

陸교수를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된 무용단은 내달13일께 출발할 예정。구체적인 공연일정은 15일 런던 커먼웰드극장、18일 파리한국문화원、20일 앙드레·말로극장、21일 파리 망다파극장무대등이다。

망다파극장은 해마다 세계적인연극、무용단체들을 파리에 초청、공연을주선해왔는데 이번에 한국현대무용단의 공연을 마련하게된 것은 밀레나·살비니예술감독이 국제적인 무용가들로부터 陸교수에관한 이야기를 들은것이 계기가 되었다는것。

陸교수가 유럽무대 공연을 위해 준비중인 레퍼터리는「전설」「살풀이」「파계」「유관순」등인데 이중「전설」과「살풀이」는 지난해 필리핀 국제현대무용페스티벌에서 발표되어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며、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파계」는 종교의 계율을 어긴 사람들의 고뇌와 슬픔、방황을 다룬것。「유관순」은 젊은 여성독립투사의 피흘린 투쟁을다룬 작품이다。

세계에 선비 評價받을 기회

레퍼터리「파계」「류관순」등

舞踊 화제

『유럽무대에 한국현대무용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이기때문에 한국적인 恨과 사랑、정개를 강하고 빠른 율동속에 표현해보려 한다』는 것이 陸교수의 설명。그를 비롯한 무용단원들은 현재 陸교수자택에 마련된 연습실에서 하루10시간이상씩 연습을 강행하고 있다。

◇「陸完順현대무용단」이 오는2월 런던과 파리무대에서 초연하는「柳寬順」의한장면。맨왼쪽이 陸교수。

단원 [illegible]씨는『올해가 한국에 현대무용이 들어온지 20주년이되는 해여서 더욱 뜻이깊다』면서『한국현대무용의 해외진출기반을 다진다는 사명감을갖고 연습에 임하고있다』고 밝힌다。

陸교수는 무대공연 외에도 독일과 벨기에의 현대무용학교에 들러 학생및안무자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독일에서는 퀼른현대무용학교와 부퍼탈현대무용단을 방문、교류를모색할 계획이며 브뤼셀의 무드라현대무용학교에서는 세계적인 안무가인 모리스·베자르와 만나 그의 현대적 무용기법에대해 의견을 나눌예정이다。

國際소프트볼 會長 내주 臺灣방문예정

【패사디나(캘리포니아)5日UPI=聯合】돈·포터 국제소프트볼연맹(ISF)회장은 내주 臺灣을 방문、오는7월臺北에서 개최되는 세계여자소프트볼선수권대회에 대한 中共팀의 참가문제를 논의한다。

臺灣소프트볼협회는 지난79년 ISF총회에서 이번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中共을 포함 46개회원국을 모두 초청키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臺灣은 회원국들에 대한 초청장을 아직 발송하지않았으며 中共은 이번대회 초청에서 그들이 제외되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晋釜驛傳 3士선두

◆晋州-馬山간(65㎞)

▲일반부=①육군3사 3시간08분41초②한전 3시간11분49초③한체대 3시간16분23초

▲학생부=①전남체고 3시간23분01초②대전체고 3시간26분55초③부산체고 3시간28분15초

負債청산싸고 力道協 분쟁

會長은 회피、臨時총회 다시열기로

대한역도연맹은 6일 대한체육회 강당서 81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었으나 李應斗회장이 기타사항 토의를 묵살한채 총회를 끝내고 퇴장하자 임시대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의결했다。대의원들은 故張喜榮전무가 연맹발전을 위해 쓴3천4백만원을 李應斗 회장이 변상하라고 기타토의사항에서 따지려했으나 李회장이 토의를 묵살、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날 총회서 李應斗회장은 故張전무가 진빚에 대해 회장으로서 변상할수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대의원들은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회장이 변상할것을 요구했다。대의원들은『故張전무가 진빚은 작년 해외선수단 파견、국제회의 참가등 연맹 발전을 위해 고인이 쓴 빚인데 연맹운영에 책임을 진 회장이 이를 회피하는것은 故人을 모독하는 행위다』고 비난하고 있다。

李회장은 작년예산으로 책정된 2억3천만원가운데 8천만원 밖에 집행하지 않았다。그리고 李회장이 낸 돈은 고작 2천3백만원이고、張전무가 연맹운영을 위해진 빚 3천4백만원、나머지 2천여만원은 이사진이 충당한것으로 알려졌다。

◇스키 3冠王의 미소 세계알파인스키선수권대회에서 활강、대회전、알파인·콤바인드(新複合경기)등 3종목을 석권、일약 스타가된 스위스출신의 에리카·헤스양。【슐라트밍(오스트리아)5日UPI=聯合】

◇선두 주자의 스윙 엘리자베드 아덴·클래식골프경기대회에서 선두를 달리고있는 비키·싱글톤양이 스윙한후 공을 쳐다보고있다。【마이애미5日UPI=聯合】

佛미셸選手 金메달 世界 알파인스키

【슐라트밍(오스트리아)5日AP=聯合】프랑스의 미셸·비용은 5일 오스트리아의 슐라트밍에서 거행된 세계알파인스키선수권대회에서 金메달을 획득했다。

流星의 賦 <303>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雅와 策謀 ㉞

무인(武人)에 대해 극히 냉담했던 김성일도 홍계남에게 쏟아진 칭송의 바람엔 무관심할수가 없었다。

어느날 오후 김성일이 홍계남을 불렀다。계남이 들어와서 좌정하길 기다려 김성일이 대뜸 물었다。

『홍공의 무예가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익힌 무예인가』

『별반 자랑할것도없는 무예입니다』

『무술을 수련하고 있는것을 본적도 없는데 그렇다면 홍공의 무예는 생이득지(生而得之)한것인가』

『무술 수련을 사람앞에서 할수 있읍니까』

계남의 이 말은 무를 천시하는 양반에게 대한 빈정거림이기도 했다。

『사람 앞에서 안하면 누구 앞에서 하는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읍니다만 소생으로 말하면 심심산곡、아니면 달조차 없는 야심에 무술을 익혔읍니다』

『혼자서?』

『예』

『선생도 없이?』

『선생님은 있었읍니다』

『선생님이 누구인고』

『성은 김씨라고 하옵고 이름은 달(達)자 손(孫)자라고 하옵는 어른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배웠는고』

『습(習)이 쌓여 술(術)이 된다는 것과 술이 익어 도(道)가 된다는 것을 배웠읍니다』

『적습위술(積習爲術)、숙술위도(熟術爲道)란 말이었지』

『말에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적(積)과 숙(熟)이라고하는 행(行)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행(行)만으로 무술、또는 부도가 되는 것일까?』

『궁술의 선생님은 엄도(道)자 익(益)자 이십니다』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인가?』

『영월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읍니다』

『그 밖의 스승은?』

『율곡선생님입니다』

『율곡? 그 사람이 무술을 가르쳤단 말인가?』

『문무 할 것 없이 제게 인생과 학문을 가르친 어른이온데 율곡선생님의 측근에 허웅(許雄)이란 어른과 신유(辛洧)라고 하는 무술인(武術人)이 있었사옵니다。그분들로부터 어(御)와 사(射)와 검(劍)을 배웠읍니다』

『율곡의 측근에 허와 신이란 사람이 있다고 들은 적이 없는데』

『그 어른들은 명리(名利)를 피하고 산간에 살았으므로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을 것입니다。율곡선생님께서 저희들 몇몇을 무(武)의 길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세상을 피해 사는 그 어른들에게 소생을 맡긴 것이옵니다。인적 없는 산골에서 십수년을 살며 약을 이용하여 각고(刻苦)한 결과 왜인이 모인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았을 정도의 기량을 익힌것입니다』

『그 허웅이란 자와 신유란 자는 아직 생존해 있는가』

『이미 미수(米壽)를 넘겼사옵니다만 소백산중에 아직 건전하시다고 들었읍니다』

『이번 시험으로 상금을 탔다는데』

『소생은 그 상금을 사양하였읍니다』

『왜?』

『상은 명분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상지자(賞之者)와 수상자(受賞者)에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0>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⑰

유원장이 고개만 저었다。아니라는 뜻같기도하고 안가르쳐주겠다는 뜻같기도했다。수지는 그독지가에대한 표독한 적의를 참느라 못내 쌔근댔다。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작 재수학원이야」유원장이 좀 교활하게 웃으면서 수지를 타일렀다。

『그 독지가가 암만해도 걸리는 모양인데 틀림없는 사람이니까 염려하지마。학원은 그 분이 마련해준 몇군데의 취직자리중에서 목이가 그걸골라잡은거야。아이들성적처리랑잔심부름하면서 숙식도 해결할수있고 무엇보다도 하고싶은공부를 얼마든지 할수있다는데 솔깃했나봐。나도 그쪽을 권했구』

그들은 버스종점까지왔다。그 동안 날이 어두웠다。퇴근무렵이었는데도 종점에 들어오는 버스는 거의 빈 차였고 나갈 때도 그랬다。

차장들이 돈주머니와 긴 대가 달린 물건들을 들고 들락거리는 가건물의 행상들불빛 속에 떠오른 얼굴은 하나같이 표정이 온종일 증발해 버린것처럼 건조하고 공허해 보였다。느닷없이 사람 사는 일의 쓸쓸함과 허망함이 추위처럼 사무쳐 수지는 몸을 웅숭그렸다。

어느 버스가 다음에 떠날 버스인가를 알아내기위해 승객도 없이 버스 저희끼리만 붐비는 사이를 얼쩡대다말고 수지는 불쑥 말했다。

『왜 목이만이 선생님을 안따랐죠?혹시 연고자가 있는 아이인가요?』

심각한 말을 하기엔 너무 불편하고 황량한 자리였다。

그 말은 오늘 온종일 아니 벌써 몇년을 두고 별러온 물음이었다。그 질문에 실린 몇 년의 퇴적을 헤며 눈치 챌까 꺼리는 마음이 일부러 그렇게 어설픈 때와 장소를 골라잡게 했는지도 모른다。

버스 타는 거나 보고 들어가려고 뒤따라 어물쩡대던 유원장이 뜻밖에 명쾌한 답변을 했다。

『아냐、갠 처음부터 자기 이름만은 알고 있었어。그건 그애의 본명이야』

『그 밖엔요?』

『그밖엔 아무 것도 알아낼수가 없었지。제 나이나 주소、부모 이름쯤 알만큼은 자란 아이였는데도 가끔 이유없이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내리 우는것말고는 말이라곤 못해서 처음엔 벙어리 아니면 바약아인줄 알았으니까。그때만해도 아버님과 연루되어 억울하게 죽은 신자의 유자녀를 돌본 게 시작이 돼서 하나 둘 더 떠맡기도하고 주워오기도 한 고아가 열명이 넘긴했지만 그러다간 장차 고아원 차리게 되겠다고 남들이 근심해줄 정도지、정작 당사자인 나는 아무런 줏대도 계획도 없을때였던가 봐。더군다나 박애정신 같은것 하곤 처음부터 상관도없이 시작된 일이었지。여북해야 그불쌍한 울보를 몇번씩 도루 내다버렸겠어?』

『또 내다버렸다구요? 가엾어라』

수지는 아득한 시선으로 겨우 손님 한명을 태우고 떠나는 버스 뒤꽁무니를 좇으며 말했다。

『아무리 멀찌가니 내다버려도 다시 찾아오는데는 정말 미치겠더군。그럴수록 백약아가 틀림없다 싶지 뭐야。지능이 낮은 동물로서 본능은 영검해진다고 들은 풍월은 있어서 말야』

어둠이 짙어질수록 들판의 마른바람은 냉기를 더하고 가건물의 유리창속에서 기사와 차장이 티격태격 희롱하는게 무대조명속의 일처럼 선명하게 드러났다。

2만4천種 7천3백만권

出協、81년도 圖書출판 통계

種數、文學5천5백種 으뜸

伸張率선 순수과학이 80%

지난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총 2만3천9백83種에 7천3백12만7천6백64部의 도서가 발행된것으로 밝혀졌다。대한출판문화협회가 納本실적에의거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81년도 도서의 총발행종수는 ▲初版 1만3천6백18종 ▲重版 1만3백65종등 모두 2만3천9백83종으로 80년에비해 初版은 4·2%、重版은30·8%가 각각 늘어났다。

또한 발행부수는 ▲初版이 5천78만6천9백89부▲重版 2천2백34만6천75부로 80년과 대비할땐 각각 1·7%、15%가 증가됐다。

발행종수별로 볼때 가장많이 출간된 분야는 예년과 마찬가지로文學부문이총5천5백25종으로 으뜸이며 가장적게 출간된 분야는 總類로 3백60종이다。증가율로 볼때 80년에비해 가장높은 신장률을 보이고있는부문은 순수과학분야로 80%나 성장했으나 總類는 오히려 마이너스 0·3% 성장을 기록、대조를 이루고있다。

그러나 부수면에서보면 학습참고서가 전체 발행부수의 45·1%(80년은50%)를차지、우리나라 도서출판의 발행유형이 아직도 학습참고서에의해 주도되고있음을 나타내고있다。학습참고서 퍼센티지가 79년에비해 떨어진것은 교육혁신책의 영향탓으로 出協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81년의 도서가격을 살펴보면 種當평균가격이 4천27원(초판4천2백72원、중판3천7백6원)으로 79년에비해 5백23원(14·9%)이 올랐다。이를 증가비율로 따지면 학습참고서(50·9%)、문학류(39·2%)、總類(35·6%)、종교서적(20·9%)의 순으로 증가했으며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것은 역사서적(1、183원減)、어학류(630원減)、아동류(371원減)이다。

한편 해마다 해적출판으로 저작권시비가 끓고있는 번역도서의경우 가장많이 번역된것은 兒童書이고 다음은 文學書로 밝혀졌는데 이두분야를 합한것이 전체번역서의 58·6%를 차지하고있다。다음이 종교、사회과학、철학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부문은 역사·總類등의 순이었다。

또 版型別로보면 菊版이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4·6版。가장 적게나온 版型은 타블로이드版이었다。

이밖의 통계치는 다음과같다。

【面數】종평균 페이지數는 3백40페이지。80년에 비해 21페이지(6·5%增)가 늘어났다。평균 페이지數에서 앞선 분야는 總類(5백41페이지) 문학(4백61페이지) 哲學書(4백55페이지)의순이고 가장 적은 것은 兒童書(1백65페이지)였다。

【장르별 문학도서】매년 마찬가지로 소설류가 1천3백47종으로 가장많고 다음이 수필집으로 3백83종으로 나타났다。문학도서가 가장많이 출간된달은 10월달이었으며 가장 적게나온달은 8월달이었다。

【種別평균가격】▲總類=10、494원 ▲철학=3、739 ▲종교=2、635 ▲사회과학=5、021 ▲순수과학=4、447 ▲기술과학=5、741 ▲예술=5、350 ▲어학=4、544 ▲문학=3、674 ▲역사=5、442 ▲아동=2、927 ▲학습참고서=2、795

【丁薰기자】

◇81년도 도서발행 부수

	初版	重版	計	初版平均部數	重版平均部數	種當平均部數
總類	594,390	117,200	711,590	2,115	1,484	1,977
哲學	679,950	1,229,400	1,909,350	1,687	1,554	1,599
宗教	2,362,892	3,165,905	5,528,797	2,272	3,372	2,794
社會科學	2,460,235	1,474,310	3,934,545	1,393	1,292	1,353
純粹科學	422,920	253,450	676,370	1,215	1,370	1,269
技術科學	1,425,125	973,950	2,399,075	1,092	1,566	1,245
藝術	1,750,050	865,550	2,615,600	1,880	1,763	1,839
語學	1,925,050	1,600,380	3,525,430	2,284	3,150	2,609
文學	4,363,990	6,402,430	10,766,420	1,638	2,238	1,949
歷史	562,017	303,400	865,417	1,434	1,431	1,433
兒童	2,901,400	4,303,000	7,204,400	1,955	1,920	1,934
學習參考	31,338,970	1,651,700	32,990,670	14,508	5,561	13,427
計	50,786,989	22,340,675	73,127,664	3,729	2,155	3,049

◇81년도 種別도서 발행량

種別	小計 初版	小計 重版	總計
總類	281	79	360
哲學	403	791	1,194
宗教	1,940	939	1,979
社會科學	1,766	1,141	2,907
純粹科學	349	184	533
技術科學	1,305	622	1,927
藝術	931	491	1,422
語學	843	508	1,351
文學	2,664	2,861	5,525
歷史	392	212	604
兒童	1,484	2,240	3,724
學習參考書	2,160	297	2,457
計	13,618	10,365	
總計			23,983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B)789-7351 , 789-7352
대표 이인용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운전학교
오행근 운전학교
423-3035

기 타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633-9341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537-0432(미스타. 리)

장의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221-1159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조혜숙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598-3732 이 건 영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 533-2361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89-6546
이영두. 이건학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건강, 사업, 결혼, 애정문제에 걱정이 있으신 분은 지금곧 "마리수"를 찾으세요.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릴것입니다.
☎ : 463－9138

FLOOR LADY 또는 MAN구함(수퍼바이저)
스포츠웃 공장에서 일을 보실 능력있는 분
위치 : 퀸×더프린
신청 ; 42 GLADSTONE AVE.
전화 : 537－0400
신청시간 : P. M. 5 : 00～7 : 00

경험있는 바느질및 재봉사구함
나일론스포츠웃감임
신청 : 42 GLADSTONE AVE. (퀸×더프린)

경험있는 남자 헬퍼구함.
(Full 타임)
☎597－1115(Mr. 박)

주방일 도우실분 구함.
☎532－2727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Mr. 한

번역, 통역 :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안 통역해드림
☎ : 281－1677 이 영 화(전대학강사)

청소, 수퍼 바이저 할분과
스프레이 버핑 하실분 구함.
☎962－0019

매매및 양도

다운타운—하이 볼륨 그로서리 스토아
현매상, 월 $50,000이상. 좋은 리스.
아스킹 $150,000 ☎535－0028(Mr. Kim)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 (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 5,200 ☎298－7635(Mr. 정)

자동차 급매, 75년형 로얄 모나코 A-1 콘디숀.
3～4년은 아무 이상없이 탈 수있음. 가격 $ 950
☎ 530－1491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 머신 $800, 렌트 $550 살림집 포함
☎ : 1－387－3983 권리금 $10,000

전망이 밝은 70여개의 가게가 들어선 새로지은 몰 안에 Take－out food Business.
☎ : 299－1713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소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 (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8시 ☎ : 783－0134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주매상 $7,000, 렌트 $700(월), (2 베드룸 아파트포함) 포함), 리스 5년+5년 옵션, 아스킹 $70,000+스탁.
☎ : 769－5956

하이웨이 24, 89, 10(SHELBURND)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붙은 가스 스테이션, 코너위치, 년매상 100만달러, 총수익 10만달러, 순수익 6만달러, 권리금 6만달러+스탁, 곧 몬트리얼 은행이 개점하므로 더욱 매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위치임 ☎ : (519) 925－5210
MRS. 윤. 오후3시 이후연락바람

COMMERCIAL BUILDING과 COIN LAUNDRY
편안하고 안전한 비지네스
사정상 급매코저함.
(블루어 × 오싱톤)
☎ : 532－7094(낮), 241－8058(밤)9시30분까지

스토아 매니져 구함, 또는 가게를 팔수도 있음 몬트리올지역
(SMALL DOWN PAYMENT)
☎ : 1－514－637－6444

● 세탁소(맞춤, 수선도함)
아스킹 $13,500
● CONVENIENCE STORE(베더스트지역)
OPEN OUR : 9 : 00AM～9 : 00PM
아스킹 $19,000 ☎ : 763－5555 DORIS BURDA
R. CHOLKAN CO. LTD. REALTOR

하우스 렌트

집세놓음(스카브로 동부지역) : 3 베드룸 방갈로, 차고있음, 지하실 꾸며져 있으며 화장실2개, RENT $400 +하이드로(월), ☎ : 822－4480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이사 하셨읍니까?
● 주소변경을잊지 마십시오?
☎ : 533－2361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3086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6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6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헬렌미용실 377 ALBION RD.
☎ : 741－7829(김조자)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Mr. LEE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6 EGLINTON AVE. W. 이 상 철

양 장 점

셀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취심급 자격를 소지
24Hour Service.
☎ : 366-8658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동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CENTURY	PEOPLE'S
(냉동기 시설및 수리)	(상업용, 가정용 냉동기)
☎ : 221－5441 미스타 이	499－1203 미스타 원

시설및 수리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 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패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6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8
50 BLOOR ST. W. ☎ : 967－7121

식 품 점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한 국 식 품
본 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 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 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일요일영업 : 11AM～7PM
※배달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B)651－9324 (R) 226－5430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 0200, (R) 533－2157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086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어정출)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 영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3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CHUNG'S ACCOUNTING
●TAX RETURN, PLANNING
●전 C. A. FIRM ACCOUNTANT
●R. I. A. SR. LEVEL
☎ : 661－1819 정 필 주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675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한 방 원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면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면,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범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입)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영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영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안내광고 11면에 계속됩니다.

2ND CLASS MAIL NO. 5248